

박종철 열사 관련 자료모음 1 : 1987. 01-02 (2)

목차

번호	일시	제목	생산처	페이지
1	1987. 01. 26	고 박종철 군 국민추모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고 박종철군 국민추모회 준비위원회 발족위원	2
2	1987. 01. 26	박종철군을 위한 추모미사 및 진혼제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외	4
3	1987. 01. 26	인권회복 미사 - 박종철군 추도 및 고문추방을 위하여 -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8
4	1987. 01. 26	고문 살인집단인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민주요이 손으로 처단하자	서울 노동운동연합	12
5	1987. 01. 26	속보 1. 박종철을 살려내라!		14
6	1987. 01. 31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관련자료집 1 (日語)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 (日語)	22
7	1987. 02. 06	자유·민주·통일 양심의소리	한국 정치범 동지회	36
8	1987. 02. 23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	40
9		우리들의 아들 박종철 고문의 죽음을 애도한다	여성단체연합 생존권대책위원회	41
10		누가 이 젊은이를 살해했는가? - 살인고문 일삼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43
11		네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갔구나!	민노련, 민학련 사건으로 7년째 차가운 감방에 버려진 이태복의 母	47

고 박종철 군

국민추모회준비위원회 발족식

우리는 박종철군 고문살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행위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이땅에서 고문 등 권력에 의한
모든 인권유린행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모든 국민, 사회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종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등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고 박종철군 국민추모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았더라면...”

일 시 : 1987년 1월 26일(월) 오후 4시

장 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종로 5가)

주 최 : 고 박종철군 국민추모회 준비위원회 발족위원

김재준, 함석현, 윤반웅, 홍남순, 이민우, 문익환, 지학순, 김대중
김영삼, 계훈제, 김명윤, 김승훈, 박영록, 박형규, 백기완, 서경원
송건호, 양순직, 이돈명, 이소선, 이우정, 이정숙, 조남기, 최형우
박용길, 문정현

준비위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발족식에 참석하여 의사를 표시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에 가입 연락처

- 개신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 위원회
전화 764-0203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742-3746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763-8776
- 가톨릭 :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332-9866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464-0385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730-9452
민주언론운동협의회 719-1064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844-8896
민중문화운동협의회 312-5393
자유실천문인협의회 718-7153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30-9452
- 여성평우회 717-1060
- 신한민주당 742-4233·745-8011~20
- 민주화추진협의회 757-6407~9

박종철군을 위한
추모미사 및 진혼제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싸움 다한 후에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피맺힌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일시 : 1987년 1월 26일(월) 오후 7시
장소 : 답동성당, 부평1동성당, 소사성당
주최 :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부 추모이사

1. 입 당 : 고통도 없으리라 (가 521)
2. 제 1 독서 : (다니엘 12 : 1 ~ 3)
3. 응 송 : 야훼는 나의 목자 (가 50)
4. 알렐루야 ㊟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와서
천지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라. ㊟
5. 복 음 : (마태 5 : 1 ~ 12)
6. 강 론 (혹은 고문 사례 발표)
7. 신자들의 기도
8. 봉헌예절 : 친구 II, 주여 당신 종이 여기 (가 218), 환많은 슬픔에 (가 121)
 - 약력소개
 - 조사낭독
 - 헌화
 - 분향 (이때 신자들은 유가족을 위한 헌금)
9. 영성체 :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가 404), 십자가에 가까이 (가 490), 생명의 양식 (가 166)
10. 묵상
11. 성명서 낭독
12. 마침성가 : 꽃상여 타고

제2부 진혼제

1. 행렬
2. 조시 낭송
3. 조가합창
4. 상여소리
5. 증언
6. 맺음의식

성 가

㉑ 521 고통도 없으리라

1. 하나님이 몸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리라 고통도 없으리라
2. 하나님이 몸소 그들의 손에서
모든 환난을 거둬 주시리니
다시는 주림이 없고 피로도 거짓 다름도
불회도 없으리라 불화도 없으리라
3. 하나님이 몸소 그들의 맘에서
모든 번민을 씻어 주시리니
다시는 불안이 없고 신음도 안타까움도
절망도 없으리라 절망도 없으리라

㉑ 50 야훼는 나의 목자

- (후렴)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1. 파아란 풀밭에 이몸 뉘어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주 나를 이끌어-주네
 2.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나고
주님 영광 위하여 지름길 인도하-시네
 3.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도다
 4. 내 원수 보는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향기름 발라주-시네
 5. 한 평생 은총이 이몸 따르리-니
오래 오래 주님 궁 그 안에 살으오-리다

㉑ 404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 (후렴) 나는 주님을 주님을 찾습니다
그 얼굴 그 모습을 형제들 가슴 속에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나
무엇을 했나요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나
무엇을 했나요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쁨 그러나
무엇을 했나요

㉑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1.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 (후렴) 파아란 풀밭에 이몸 뉘어 주소서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여 당신 품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실 곳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드립니다
2.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롯이 왔나이다
하얀 소복 차려 여기 왔나이다
한평생 주님 함께 살고파 왔나이다.

㉑ 490 십자가에 가까이

1.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성혈로 나를 씻으소서
- (후렴)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율단강 저편에는 영원 안식 있네
2.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구원을 내게 비추시네
 3.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몸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4.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주의 나라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가 121 한많은 슬픔에

1. 한많은 슬픔에 탄식만 하오며
십자가 우러러 구슬피 우오니
인자한 우리 구세주 내 영혼 위로하소서
(후렴) 오 주 예수 영혼의 빛이여
불쌍한 죄인 돌보사 위안해 주소서
2. 연약한 내 영혼 괴로와 하오니
고통을 덜으사 위로해 주소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성혈로 씻어 주소서
3. 인자한 예수여 내 희생 받으사
당신의 고통에 합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이 제사로 온세상 구원하소서
4. 참 생명 주시는 수난의 예수여
우리의 희망이 당신께 있으니
성심의 크신 사랑에 이 마음 살라주소서

가 166 생명의 양식

1.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 되리
(후렴)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2. 이 빵은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3.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4.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친 구 II

꽃상여 타고

어두운 죽음의 시 대 내 친구 는 - -
 죽은 눈물 닦은 피 흘리며 역사가 부른다
 멀고 험한 길을 북소리 울리며 사라져 간 다
 친구는 멀리 갔어 도 없다 해도 - - 그분들 기별 빛속에 빛나네
 내 맘속에 영혼으 로 살아 살 다 - -
 이 어둠 을 - - 사르리 사르 리
 이 장벽 을 - - 부수리 부수 리

양성우 작시 박운우 작곡

꽃상 여 타 - 고 그대 잘 - 가 라
 세 상의 모든 꿈만 무 다 가는 그 대
 이 여 - 림 불 타 는 버드 나무 숲 사 이로
 그 - 대 잘 가 라 꽃상 여 타고
 가슴에 묻는 갈로 슬픔을 자르 고
 어 이 어 이 눈물 물을 땅에 뿌리 고
 그 - 대 잘 가 라 꽃상 여 타고
 그 - 대 잘 가 라 꽃상 여 타고

인권회복 미사

- 박종철군 추도 및 고문추방을 위하여 -

- 일시 : 1987년 1월 26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 명동대성당
- 주최 :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서울대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I. 말씀의 전례

1. 미사전 해설

2. 입당성가 : 민중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응답 하 소 서 정복의 하느- 님 - 무

리기도 들으소 서 - 귀역은 하느- 님 -

얼굴을 돌리시 는 - 화 상 당- 한 하- 느- 님

그 래 도 당 신 은 하 나 뿐 인 민 중 의 아 버- 지 - Fine

하 느 님 당 신 은 죽 어 버 렸 나 어 두 운 골 목 에 서 울 고 계 실 까

쓰 레 기 터 미 에 문 혀 버 렸 나 가 없 은 하 느- 님 - D.S.

3. 제 1독서 : 창세 4, 2-10

응답성가 :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공 478)

이שראל 노래

1. 형 제 가 쓰 러 저 가 총 칼 이 가 습 을
 2. 시 체 가 소 어 저 있 네 충 칼 이 가 습 을
 3. 고 체 파 소 혼 어 저 있 네 충 칼 이 가 습 을
 4. 하 느 님 당 신 의 손 은 축 음 의 쇠 할 사

젓 네 평 화 를 목 말 라 하 면 서
 우 네 험 벗 고 화 를 주 름 이 속 에 서
 없 네 따 뱃 뜻 고 인 정 아 쉬 (후렴) 우 리 는
 끄 네 회 망 과 평 화 하 주 시 오 니

당 신 을 기 다 름 니 다 우 리 는 당 신 을 기 다 름 니 다

4. 제 2독서 : 에페 4, 1-6

알렐루야 :

◎ 당신이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도다. ◎

5. 복음 : 요한 19, 25-30

6. 강론 : 김수환 추기경

7. 신자들의 기도

- ① 우리 교회를 위하여
- ② 진리를 위하여 살다 간 민주열사들을 위하여
- ③ 이 사회의 인권회복과 고문추방을 위하여

II. 성찬의 전례

8. 봉헌성가 : 부름받은 젊은이 (가 449)

- ①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은 젊은이
 눈동자에 어린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 ③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은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정열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따라 앞장서서 충실하게 살리라

9. 영성체 성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가 227)

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마른 사람은 내게오라

무거운 짐진자 멍에벗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주리

② 나를 믿는자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③ 나는 생명이요 진리이며

너희가 가야할 길이다

누구나 이길을 충실히 걸으면

영원한 복락을 얻으리라

생명의 성체여 (가 163)

① 거룩한 성체여 주님의 몸과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어 새생명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성체

② 거룩한 성체여 신비의 성사여

주 예수 우리와 한몸을 이루네

우리의 형제 만나서 주안에
하나되리라 기록하신 예수성체

- ③ 거룩한 성체여 기쁨의 샘이여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옵소서 기록하신 예수성체
- ④ 거룩한 성체여 구원의 길이여
희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주님 본받아 구원의
길로 가리다 기록하신 예수성체

생명의 양식 (가 166)

- ①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안에 살게 되리
〈후렴〉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리
- ② 이 빵은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 ③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 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 ④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가 175)

- ① 이 보다 더 큰 은혜와 보다 큰 사랑이 있으라
내 영혼이 침묵 중에 정성된 기도를 드리네
수고하는 자의 위로며 굶주린 이들 양식
내 근심을 주께 맡겨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 ② 주님은 당신 성혈로 언제나 우리를 씻으사
내 마음을 비추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삶의 길 열리니
내 생명을 주께 맡겨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10. 영성체 후 묵상

11. 파견성가 순교자 찬가 (가 283)

- ①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님이여
칼아래 쓰러져 백골은 없어도
푸르른 그 충절 찬란히 살았네
〈후렴〉 무궁화 머리마다 영롱한 순교자여
승리에 빛난 보람 우리에게 주옵소서
- ② 기우는 정의의 목숨을 건지려
주림과 추위와 죽음과 싸우며
겨레의 힘으로 찾아온 진리를
굳세게 굳세게 피로써 지켰네
- ③ 한몸을 헐어서 백두산 모으고
선혈은 쏟아서 동해를 이루어
무궁한 신앙의 나라를 닦으신
크신공 하늘에 영원히 빛나리

성명서

인권수호를 으뜸가는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교회는 기회있을 때마다 고문의 완전한 철폐와 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박종철군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젊은이의 생명이 무참히 꺾어진 사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한 탓임을 깊이 통회하고 반성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치안본부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중 많은 부분에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바로 공개되지 않았고, 박군의 시신이 서둘러 화장되었으며, 마땅히 직접 수사를 벌여야 할 검찰이 경찰로 하여금 자체 수사토록 하였고, 또한 관행을 깨고 현장검증을 실황조사로 대체한 점 등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개수사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수사결과도 거부하며, 이런 경우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고문사건 또는 의문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건과 그밖의 많은 학생, 근로자, 재야인사들에 대한 고문사건, 그리고 서울대학생 우종원군, 서울대학생 김성수군, 근로자 신호수씨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그동안 당국에 의하여 묵살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억울한 죽음이나 고문 피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를 의법 처단할 때 국민의 의혹은 사라지고 인권신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우리는 박종철군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알리려고 노력한 기자들과 용감하고도 양심적인 증언을 한 왕진의사에게 찬사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진실의 편에 섰다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적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책임지고 수행할 때에만 사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또한 소중한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회에서 고문이 근절되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상황에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고문의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고 고문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고문을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 사법부가 가장 먼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사법부의 고문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보여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 정치적 비판자가 용공좌경으로 매도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문이 행해져 왔으며,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살인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고문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가장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더우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연히 고문을 행하고 또한 이의 은폐를 기도하는 정권은 이미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정치권력이 특별기구의 설치 등 일시 방편적이고 그 효과가 의심되는 고문근절 방안의 발표로 국민을 호도하기 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이땅에서 고문을 영원히 추방시키기 위하여는 국민 개개인이 항상 깨어있고 불의에 대한 감시에 게으르지 말 것을 바라면서,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교회가 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1987년 1월 26일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고문 살인집단인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민중의 손으로 처단하자

인천만 노동자와 4천만 서민대중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우리 서민의 아들로써 온몸을 던져 민주화투쟁에 헌신하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전두환정권의 폭력기관인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형사놈들에 의해 살해당하였습니다. 스물한살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튀는 처참한 고문을 당한 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한줌의 재가 되어 임진강 차가운 물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줌 재로 스틱져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인천만 노동자와 농민, 서민, 애국청년학생 등 4천만민중의 가슴마다에 솟구치는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두환정권은 살인 폭력집단입니다.

벌건 하늘 아랫 어저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입만 벙끗하면 선진조국이다 민주화다 86,88이다 떠들어대는 전두환일당의 본색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놈들은 정권을 잡을 때부터 수천명의 동포를 학살했습니다. 거창주항쟁 때에 참혹하게 살해당한 숭한 영혼들이 이 압제의 하늘 위를 떠돌며 통곡하고 있으며, 그 유가족들의 원한과 울분 역시 그대로 응어려져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저놈들은 정권을 잡은 후 지금까지 6년간 무려 6천명 이상의 노동자, 농민, 애국학생,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를 잡는답시고 고문하고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을 못 견디 죽는 사람이 생기면 기차에서 던져거나(85.9. 서울대생 우종원군) 돌을 매달아 바다에 버리고(86.5. 서울대생 김성수군) 또는 산속 바위동굴에 감추어놓고서(86.6. 인천 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씨) 발견되자 자살이라고 발표하곤 했습니다. 또 작년 6월에는 스물두살의 여성노동자에게 경찰서안에서 온갖 더러운 성고문을 자행하고서 그 사실이 폭로되자 꼬끝내 오리발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전두환일당은 이처럼 추잡하고 파렴치한 고문살인 폭력범죄집단인 것입니다.

■ 전두환정권은 민중을 짓밟고 민족을 팔아먹는 반민주적 매국집단입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경찰놈들이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쳐 짓밟아 구속시켜버립니다. 88년에 코쟁이들에게 잘보이려고 우리들의 피땀어린 막대한 세금을 흥정망정 써버려서 서민들의 보금자리고 일터인 판잣집, 노점상 가릴 것 없이 짓밟아 부수고 쫓아내는 것도 전두환일당입니다. 또 양능소를 수입해다가 숭한 농민을 자살하게 만들고 농가경제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도 그놈들입니다. 이런 악독한 행패를 당하면서 우리 힘없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대를 이어온 가난과 멸시,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양코쟁이, 쪽발이놈들과 정주영, 김우중 같은 재벌놈들과 한통속인 전두환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우리 돈없고 배운 사람들에겐 행복한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놈들이 우리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할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 박종철군은 4천만 민중의 행복과 6천만 거리의 통일을 위해 싸우다 살해되었습니다.

서울대생 박종철군은 박봉 20만원으로 살아온 서민의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의 노고를 가슴저리게 느껴면서도 우리들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큰 효도요 애국이라 확신하여, 가진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의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잠시 감옥에까지 갔다 왔던,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요 투사였습니다. 그런 박종철군을 그놈들은 왜 죽였습니까? 전두환일당은 온 국민의 민주화열망에 놀라 합의개헌을 한답시고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미국놈들은 직선제를 하면 자주적 정부가 들어설까봐 내국계개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일당은 내각제로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죄다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쏘아넣어야만 됩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대다수 민중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지도자를 뽑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방된 새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 노동자, 애국청년학생, 민주인사를 수배해놓고, 잡으면 일계급특진에 수백만원 상금이요 못잡으면 문책하겠다고 그간 전두환일당이 야단법석을 떠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전두환일당의 이러한 명령을 받아 수배자를 잡는 데 눈이 시달려 전 형사놈들이 참혹한 고문을 일삼아오던 중 우리 박군이 불행하게도 희생된 것입니다.

■ 고문살인의 주범은 전두환일당과 그 뒷배를 보아주는 미국놈들입니다.

전두환일당은 말단 형사놈들에게 고문을 일삼도록 시켜놓고서는, "고문을 근절하겠다" "인권보호기구를 설치하

했다. "유감이다"는 동 농정을 땀니다. 그리고 고본의 진상을 숨기고 살인형사놈들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 은갓술책을 다 부립니다. 또 경호용을 대부부장관에, 이영창을 처안본부장에 새로 임명했습니다. 경호용이란 놈은 80년 5월 광주시민을 대량학살한 주범중의 하나로서 당시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살인범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고본을 근절한다는 말입니까? 이영창은 작년 10월말 건국대에 학생들을 몰아넣고서 개똥듯이 때려잡은 시경국장이었습니다. 장안동, 옥인동 등 곳곳에 널린 시경 대공본실도 고본으로 말하면 처안본부나 안기부에 되질 바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미국놈들은 광주사태 때 근병력투입을 허락해준 후 전두환을 계속 지지하여 뒷배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와서 박근사건이 나자마자,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가 법에 따라 처벌되기를 희망한다"고 겉사게 발뻘한 뒤, 형사 두놈이 구속되자 전두환의 "고본근절 의지를 환영한다"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뻔뻔스러운 사기극에 속지 마시다. 미국놈들은 이땅에 자기네의 군사기지와 핵무기를 영원히 주둔시키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면서 수입개방을 요구해서 우리 민중의 피땀을 빨아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나 우리 경제의 흥일은 손톱만큼도 바라지 않는 그런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우리 모두 펼쳐 일어나 민중의 나라를 세웁시다.

어떻게 하면 저 고본살인집단을 우리의 손으로 속 시원하게 처단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이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놈들은 군대와 경찰, 국회와 사법부를 제마음대로 주무는 힘센 집단이고 우리 민중은 맨손뿐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빼앗기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억압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지 마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보시다. 우리 모두가 한명어리가 되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정의로운 싸움을 벌여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수배자들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도와줍시다.

언제 어느 곳에서 잡혀가 견고본, 불고본을 당한 끝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이 고루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는 우리 노동부사, 애국청년학생, 민주시민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불순본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다운 형제입니다. 파출소 순경, 통반장이 아무런 귀찮게 굴어도 절대 신고하지 말고 수배자를 잡기 위해 수사로 실시하는 호구조사에도 협조하지 마시다. 그런 일에 협조하는 것은 곧 자랑스런 아들딸들을 지하고문실에 보내 죽이는 일과 다름없는 것임을 명심합니다.

2.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탄압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의 생산자요 창조자임을 확신하고 생산의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조활동과 임금인상투쟁 등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공장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임을 만들고 집회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동료들과 힘을 합쳐 싸워나갑니다. 또 생존권마저 가차없이 짓밟는 철거와 노점단속에 항의하고 은갓종류의 부당한 억압에 항의합니다. 전두환일당이 벌이는 어떠한 사업에도 협조해주지 마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나갑니다.

3. 각종 항의집회와 시위에 적극 참가합니다.

노동자와 애국청년학생들이 여는 고본규탄집회와 시위에는 빠져지 말고 참여합니다. 하루 돈을 못벌더라도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내일을 위한 일에 함께 하는 보람 역시 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민당이나 재야의 고본폭로대회나 계헌대회가 열리면 그 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인 분노를 함께 나누고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한껏 주장합니다. 직선계계헌이 된다고 세상이 단숨에 좋아질 수 없는 만큼 신민당에게는 정권잡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진실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의 면에서서 과감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남영동 처안본부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구속자가족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경찰기관에 전화를 걸어 목청껏 규탄하고 항의합니다.

속보 1

박 종철을 살려내라!

1987. 1. 26.

■ 박 종철군 살인 고문 일지

- 1월 13일 : 오전 10시 박군 " 일본어 듣기 강좌 " 듣기 위해 집을 나섬, 오후 12시 친구집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 행방불명 됨 .
- 1월 14일 : 오전 8시 40분 박군의 집에서 연행, 9시 16분 부러 취조시작, 11시20분 사망. (경찰발표) 오후 8시 부산 박군의 집에 기관원 찾아감, 박군 아버지 5만원 빌어 서울로 상경, 기차안에서 박군 사망사실 확인.
- 1월 15일 : 오후 3시 가족들 엄불채과 사진을 들고 상경, 중대부속 용산병원에 도착, 오후 6시 병원에 거차도착, 8시 10분 한명로 시신 이송. 9시 5분 삼촌 박월길씨, 한양대학 병원 당직책임자 박동호 박사입회로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황유준 박사 집도로 부검시작. 머리에 심한 뇌출혈 증세및 몸 19군데 타박상 확인.
- 1월 16일 : 오전 8시 장외차 도착, 8시 30분 벽제 확장터 도착, 25분후 확장시작, 11시 10분 유골이 분골실로 옮겨져 학안 저로 변함. 아버지의 "철아 그만 잘 가거라" 라는 비통한 말과 함께 셋강에 무력짐.
강민창 치안본부장 사망후 2일 지나서야 사건발표, 연행일자와 시간을 조작하고, 사망사유 또한 소리에 의한 단순한 스킨사라고 왜곡.
- 1월 17일 : 국민여론 분개, 사건의 진상공개 촉구, 민주화운동단체 항외농성및 성명발표
- 1월 18일 : 국민의 분노 극에 달함, 신문사 사건 진상(일부)보도, 치안본부 이에 놀라 가혹행위 일부 시인.
- 1월 19일 : 강민창 치안본부장 사건 재발표, 가혹 행위에 의한 사망 시인, 단순한 물고문 2차례 가했다고 주장, '지나친 직무의욕이 빚은 결과' 라는 비인간적인 발언을 공식적으로 함.

현 정권의 고문살인 만행에 온몸을 다해 분노한다.

- 박 종철 형제를 살려내라 -

지난 1월 14일 전두환군부독재의 주구인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의해 푸르디 푸른 꽃같은 생명이 무참히 찍어 버렸다. 더우기 만행을 자행한 치본이나, 이러한 고문을 제도화해왔던 현정권은 국민과 유가족앞에 진심으로 속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 왜곡시키기에 열안이 되어 있다.

1월 16일의 처분발표, 19일의 재발표, 그리고 현직 검찰과 현정권이 벌어고 있는 일련의 조치 (합의 개헌하면 구속자 석방한다. - 노태우 발언) 는 박종철군을 구천에서 해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박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현정권의 기만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먼저, 처분의 사건발표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현정권은 역초부적 사건을 은폐하려 했음이 분명하며, 19일 발표에서도 고문사실을 단순히 물고문으로 국한시켜 민중기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강민창 처안본부장의 16일 발표와 19일 발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강민창 수사본부장은 사망후 이틀이나 지난 16일 발표를 통해, 박군의 여행날짜를 14일 오전 8시 하숙집이라 하였으나 실제 박군 실종시간은 13일 오후였으며, 사망원인도 단순한 쇼크사라고 하였다가, 국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자 19일에 이르러 단지 물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사건을 왜곡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박군에게 가해진 고문은 물고문뿐이 아니다. 박군 사망이후 삼촌 박월길씨와 사망진단을 내린 중대부속병원 의사 오인상씨의 증언에 의하면 박군의 몸에는 십여군데의 피멍자국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전기고문에 의한 엄지와 검지사이의 상흔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박군이 엄청난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다시말해서 발표내용중에서 현행시간, 고문사실 등에 대한 의구심이 씻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정권은 이번사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고, 회개하기는 커녕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같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이유는 이 사건이 폭로됨으로써 80년 이후 정통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폭력적 지배구조속에서 상습적으로 자행해오던 관제기관 (송파 보안사, 옥인동시경특수수사대, 장안동 시경5개, 안기부)에 의한 고문정권의 속성이 국민들 앞에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다.

이번 박종철군 살인고문 사건속에는 80년 이후 관제기관에 의해 상습적으로 자행되던 고문정권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서 들어난 정권의 속성을 낱낱이 폭로해 본다.

먼저 임의 동행에 의한 불법납치를 통해 사건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사법부에 의해 불법임이 밝혀졌음에도, 그동안 공공연이 자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안기부등 관제기관의 의한 행방불명자의 대량발생상황이 잘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문은 인간존엄성의 유린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그동안 정권유지 도구로 상습적으로 자행되어온 고문의 실패가 어찌했음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박군을 조사한 조사실의 경우 물고문을 위한 목조가 있고, 박군의 시체 부검에서 증명되는 구타와 전기 고문등이 관제기관에 의해 공공연이 자행

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문은 김근태 씨 (전 민청련 의장), 서노련 관계자, 5.3 인천사태 관련자여 대한 고문, 부천 성고문 사건, 그리고 최근의 박종철 동맹당 사건 같은 실로 헤아릴수 없이 자행되어 왔다. 이번 박종철군을 사망케한 ~~현정권~~ ^{조한경}이 바로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를 고문한 장본인이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세째,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상습적인 민중기만성이다. 사건발생후 시체부검을 비밀 영장을 통해 하였고, 엄연히 지부검을 하지 않고는 화장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했다는 점, 조사를 검찰에서 하지 않고 다시 경찰에 이전시켜 사건조사의 진실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점, 그리고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조사원의 지나친 직무의욕'이란 발언이 증명하듯, 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범죄 사실을 호도하고, 조.강 두 형사의 영장에서도 두명의 범죄 사실보다 숨진 박군의 신상명세가 더욱 많았다는 점등이다. 결국 이 사건은 사건의 발생시 현정권이 말하는 '지나친 직무의욕'이 아닌 제도확한 폭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되어 왔고 지금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이 어느정도 잘 증명되고 있다.

현정권은 80년 광주학살로 등장하여 지난 6년동안 사회악의 진원지로 군림하여 왔으며 그들의 정통성, 도덕성의 부재를 폭력적 지배구조로 대처하여 왔고 이속에서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어 온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근원적 발생원인은 치안본부나 내무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정권의 폭력성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건의 진상을 왜곡한채, 치안본부장 내무부 장관의 경질 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즉 사건발생의 과정에서부터 그 처리까지 공작성있는 조사발표와 아울러 이 땅에서 이러한 인간존엄성의 말살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이 만행을 일으킨 현정권의 퇴진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수 있는 것이며, 21세의 꽃다운 젊은 목숨을 빼앗긴 박종철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건을 냉철한 눈으로 주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 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에게서 권력을 강탈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난무하고 있는, 그리고 질서를 내세워 민주주의의 이념을 억압하는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 현정권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박종철군의 살인고문으로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현정권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을 더욱 기만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앞에 약속 하고서도 발뺌을 통해 오히려사건을 비호하고 (박군 의몸에 생긴 79군 데의 피멍은 물고문 과정에서 생긴 것, 연행일자

와 연행시간의 불규명, 고문경관 없이 진행된 현장검증 등) 더군다나 경질된 치안본부 장 후임으로 7월 29일 신민당 개헌집회의 때 대적인 탄압을 자행한 이 영창이 들어서고, 내무부 장관으로는 80년 광주학살 당시 특전대 사령관이자 진압사령관이던 정호영이 들어선 것은 현정권이 결코 회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빚어지는 집권의 위기를 철저한 독력으로 무마할 것임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고문과 독력을 얻어자는 국민어른이 불같이 일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동안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치안본부 대공본실 등 특수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있는 30여명의 인사들(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50여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짐)이 있다는 사실에서 현정권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임으로는 고문을 근절시킨다는 이 고문방지를 제도화 한다는 이 떠들어 대면서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그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의 귀중한 하느님 생명을 앗아가고도 회개할 생각은 않고 정권유지에 급급한 현정권의 일련의 조치들은 결코 국민의 심판과 하느님의 분노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정권에게 고한다!

마음을 비우고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복진하라. 이 길만이 극한대립으로 빚어지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인권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현정권이 국민과 하느님 앞에 보속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고문 일지

1984.9.4 (청양리 경찰서 여대생 추행사건)

전두환정권의 매국적인 반일 반대 시위중 여대생 (경희대) 3명이 사부경찰 및 삼청대원에 의해 연행당함. 유치장에서 복수색을 당하던 중 청양리 경찰서 전경이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알몸인 채로 (이중 한명은 생리중이었음) 이들에게 치욕적인 기합과 성적 수치심을 주. 이모양을 몇몇 전경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치욕과 수치로 여학생들은 오열하였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한 여학생이 증언.

1984.11.3 (서대문 경찰서 여대생 추행사건)

연세대에서 있었던 학생의 날 기념 행사에 참가도중 연행된 92명의 학생 가운데 여학생 4명이 강제 추행 당함. 여학생 4명의 상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삼부대로 산 과목으로 폭행을 가하고, 경찰 2명은 화장실에 갇 여학생을 쫓아가 젖가슴을 주무르고 이 작태를 서로 자랑스럽게 재현 했음.

1985.9 (민정련 전외장 김근택씨 고문 사건)

민주화운동 청년 연합 전외장 김근택씨가 9월 한달동안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함. (이번 박종철군을 숨지게 한 조경환이 이때에도 김씨를 고문했음) 김근택씨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 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하루 약 5시간 가량 당함. 전기고문을 주도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행해졌는데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게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 죽음에 대한 현 박공과, 집단 폭행, 잠 안재우기, 반공기기, 전기고문, 물고문, 인간에 대한 동물적 능욕 등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앞에서 김근택씨는 아우슈비츠를 생각했고 차라리 죽음을 걸선했다고 함.

9월 13일에는 고문자들이 김근태씨에게 "예수가 주어진 최후의 만찬이다. 너의 장례식이 다"라고 위협하면서 전기고문. 물고문을 가했고 이날 이후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밥도 제대로 못먹고 밤피꿈치, 밤피꿈치는 짓이겨 줬다고 함. 이러한 사실은 12월 19일 1차 공판의 진술과정에서 밤 허저 국내외의 분노를 자아냈고,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다. 김근태씨는 현재 강릉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1985.9.2 (이을호씨 고문 사건)

민정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을호씨가 치안본부 대공본실로 연행되어 44일간의 고문 수사에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용안동 서울 시립정신병원에 강제 유치된. 치본의 고문 수사가 23일 동안 계속되던 때의 일을 이씨는 "밥을 한끼 못먹고 배설을 한번도 못하여 몸을 가눌 수가 없다" "남더러 복에 갔다왔다고 한다"고 진술함.

모친과 처가 '몸이 쇠약해 겨울 밥을 우려가 있으니 투약을 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거부 당함. 현재 이을호씨는 심한 정신 이상으로 자식과 아내, 늙은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여 3년 동안 최상으로 치유해 봐야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함.

1985.9 (전학련 삼민주 위원장 허인회 등 학생들에 대한 고문사건)

고대 총학생회장이며 전학련 삼민주 위원장 허인회군은 85년 9월 가슴과 국부에 참혹한 전기고문을 당함. 또한 용공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서울대 '기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문식, 문용식군도 참혹한 고문을 당함. 그중 한 학생은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수사요원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면서 덜 맞기위해 고문자의 옷을 잡는 순간 의식을 잃음. 깨어났을 때는 너무도 정신이 몽롱하여 그 상황에서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함.

1985.10.12 (서울대 우종원군 변사체 발견 사건)

85년 8월 중순 이후 학생운동 관계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서울대생 우종원군(23세, 사회복지학과 81학번)이 10월 12일 아침 경부선 영동 - 황간역 사이 철도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경찰은 우군이 10월 11일 23시경 경부선 하행열차를 타고 가다가 투신 자살했으며 시신은 13일 오전 11시경 확장했다고 발표함. 우군은 84년 5월 특사로 출감하여 학업을 하던 중 자신이 수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8월 26일 집을 나가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가족들은 10.12일 오전에 대구시경소속 형사 1명이 우군의 집에 찾아왔고 이날 오후 6시경 우군의 사망소식을 듣게되었던 점과 우군의 시신을 확장하던 시기에 집에 기관원 2명이 찾아와 집안의 동태를 감시하는 점등 우군의 사망소식에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1986.5 (서노련 관련자 고문 사건)

86년 5월 3일 - 6일 서노련회원의 김문수 (36. 한일공업 해고자), 최한백 (36. 대우어팩트 해고자), 서해경 (27. 가리봉전자 해고자) 씨 등과 함께 정계피복 노조간부의 황만호 박기현 씨등이 국군보안사령부에 납치되어 거여동 송파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 내지

얼굴씩 참혹한 고문을 당함. 보안사의 인간백정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무차별 구타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담배물을 콧구멍에 넣는 등 차마 인간으로는 행하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음. 이런 고문으로 생간 상처부위를 뜨거운 물에 담근 다음 안티프락민으로 맛사지한뒤 계속 만행을 저지름. 이 고문으로 서해경씨는 양논의 싹피줄이 모조리 터져 앞을 잘 보지 못하고, 황만호씨는 상처에 피멍투성이고 손톱말이 까맣게 죽었으며 심한 고문으로 보안사에서 3일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김문수씨는 보름이 지난 후까지도 걸음을 걸지 못하는 등 김근택씨와 똑같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 1986. 6. 5 (부천시 성고문 사건)

지난 6월 5일 부천경찰서에서 수사과 형사 문귀동이 권양(22세, 서울대 가정과 4년 전적, 노동자)을 조사한답시고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참혹한 성적 고문, 폭행을 가했다. 6월 5일 새벽 4시경 문귀동은 권양을 조사실로 데려가 "5.3사태때 여자들만 다루었다. 모두 책상에 올려놓고 아랫도리를 벗겼더니 다 불더라"고 하며 수치심을 자극하는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권양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면서 실신상태에 이르게 한 후 그랜드 권양이 수사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권양을 불꺼진 뒷방으로 끌고 가 손을 뒤로하고 수갑을 채운뒤 무릎을 꿇게하고 그 사이로 각목을 끼워넣고 넓적다리 와 허벅지등을 마구 짓밟고 구타함. 문귀동은 "너같은 년 하나 죽이는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육박지른후 권양의 옷을 벗긴후 젖가슴을 주무르고 빠는가하면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권양의 입, 가슴, 허벅지등에 갖다대며 사정까지 하는 등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온갖 변태적 만행을 저지름. 한편 검찰과 정부는 6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 문형사가 권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것은 사실이나 성고문은 결코 없었다고 단정지며 사건의 본질을 은폐, 왜곡 발표함.

권양은 검찰발표에 분개, 7월21일 - 27일까지 일주일간 단식을 감행하여 한 여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혹한 성적 고문을 당하고서도 개인적인 수치심을 뛰어넘어 살신성인의 태도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군부독재와 투쟁하며 차디찬 감옥에서 의연하게 싸우고 있음. 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고문 사건에 대한 시민, 학생들의 폭로집회와 규탄시위는 계속되어 "고문수단으로 강제추행 자행하는 파렴치한 군사독재정권 물러가라" "강간경찰 사육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정의의 외침으로 거세게 일어났음.

또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대책위원회"가 7월 11일 발족하여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비열하고 추악한 성고문과 고문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불굴의 결의로써 투쟁해 나갈것을 결의

■ 1986. 6. 11 (연안가스노동자 신호수씨 변사사건)

연안가스(영세배달업소) 배달원 신호수씨(24세, 전남여수)가 자칭 서울시경 대공수사 반이라고 밝힌 3명의 사복형사에게 불법연행된 후(실종 8일만인 19일에 전남 여천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여수 경찰서는 자살로 처리, 가매장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신호수씨의 부친에게 가매장했다는 통보를 해주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은 사체의 손목, 발목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발견당시 양손이 모아져 바지로 묶여있었고 양팔과 가슴도 허리띠로 한데 묶여져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틀림없는 타살이라고 추정함.

이런 상황에서도 여수경찰은 자살로 단정하고 가족에게 통보도 없이 부랴부랴 가매장한 사실은 폭력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의 고문살인이란 심증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고 있음.

■ 1986. 6. 21 (서울대생 김성수군 변사사건)

부산송도 앞바다 속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 1년 김성수군이 6월 18일 서울에서 실종된 후 시멘트덩이에 매달린채 시체로 발견됨. 경찰은 시체가 발견된지 하루만에 단순 자살로 처리하였으나 김군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까지 내려가 자살할만한 동기가 없는 데다 시체부검결과 두피하출혈 20cc의 상처가 발견되는 등 정당한 타격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 머무기 김군이 경찰에 의해 고문살해되었다고 추측하는 이유는 김군이 학생운동권과 관계하고 신발속에서 발견된 편금도서목록은 위기감을 우려해 감춰둔게 아닌가 하는 점과 누군가 곰개 시체를 갖다놓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씨의 의문사건과 함께 아직까지도 많은 의혹을 남고 있으며 납득할만한 사인규명을 위한 직수사가 요청됨.

■ 1986. 11. 7 (광산노동자 살해 기도 사건)

86년 11월 7일 오후 5시경택배시 연화동 소재 미인북포에서 광산 노동자에 대한 살해 기도 사건이 발생됨. 광산 노동자 박인균씨를 김창국(가명 장익수)씨가 노동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유인하여 둔기로 뒤통수를 후벼친후 폭포부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 하려고 함. 다행히 박인균씨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손바닥과 한쪽 발바닥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허리를 다친채 폐투성이가 되었고 김창국도 달아나 버림. 박씨가 있는 병원에 사복형사 10여명이 들이닥쳐 박씨를 연행해 갔고 이날밤 10시부터 8일 새벽 사이에 평소 박씨와 함께 노동자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였던 광산 노동자 10명도 연행. 당시 인권선교위원회는 "그간 신호수, 김성수군등의 의혹에 싸인 실종 변사사건과 박인균씨 살해기도사건이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이 아닌가하는 의혹속에 사건이 조작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밝힘.

-살인고문 일삼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꽃삼여 타고 그덕 잘가라
색상의 모진 품만 꾸다가는 그대
이여름 불타는 버드나무 숲사이로
그덕 잘가라 꽃삼여 타고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어이 어이 큰눈물을 땅에 부리고
그덕 잘가라 꽃삼여 타고
그덕 잘가라 꽃삼여 타고

민가 노관용

ソウル大生

朴鍾哲君拷問致死事件

関連資料集 1

内 容	I. 事件の概要	IV. 団体声明
	II. 当局発表	V. 関連日誌
	III. 新聞記事より	



在日韓国人政治犯を救援する家族・僑胞の会

ソウル大生 朴鍾哲君拷問致死事件関連資料集 1 頒価200円

発行日 第1刷 1987年1月31日 / 第2刷 1987年2月4日 / 第3刷 1987年2月28日

翻訳・編集・発行

在日韓国人政治犯を救援する家族・僑胞の会

印刷所 ユニワールド印刷センター

発行所 在日韓国人政治犯を救援する家族・僑胞の会

東京事務所 〒101 東京都千代田区神田神保町1-27

松屋ビル3F 人権問題研究所内 ☎03(295)3418

関西事務所 〒530 大阪市北区神山町2-10

又吉ビル3F 法律問題研究所内 ☎06(315)1886

郵便振替口座 東京4-46032 大阪3-304961

目次

I. 事件の概要 _____ 2

死亡した朴鍾哲君の連行から拷問-死亡-火葬まで

“友人の所在をいえ” 密室の水拷問 [東亜日報1月19日]

◆貧しいなかでも明るくくじけなかった21年 [東亜日報1月19日]

II. 当局の発表 _____ 9

1. 警察(治安本部)発表<全文>

2. 検察発表[韓国日報1月25日]

3. 公訴文<全文>

III. 新聞記事より _____ 13

IV. 団体声明 _____ 19

1. 不法拘禁者家族一同・民主化実践家族運動協議会[1月20日]

2. 拷問および容共ねつ造阻止共同対策委員会[1月20日]

◆朴鍾哲君の姉が東亜日報によせた手記

V. 関連日誌[1月13日~28日] _____ 23

I. 事件の概要

死亡した朴鍾哲君の連行から拷問—死亡—火葬まで

“友人の所在いえ” 密室の水拷問

朴鍾哲君は、死の前日である13日の午前10時ごろ、学校で「日本語冬季講座」を受講しようとするソウル冠岳区新林9洞246の26にある下宿をでた。

朴鍾哲君は去る12月29日故郷の釜山に帰り今月3日に上京したが、この間ずっと下宿で過ごしており、この日の外出は久しぶりのことであった。

学校で日本語講座を受講した朴君は、午後5時ごろ校内の第3棟にある言語学科事務室に入り、今学期の成績表をもらい、同級生の申君(21・言語学科3年)ら2名と学校前の289番バス最終到着所のうしろの食堂「一味店」に向かった。

朴君らは休暇後はじめて会ったからか、互いに休暇中にあったことについて話を交わし、愉快的な雰囲気でもッコルリ一瓶半を3人であけた。

13日夜から行方不明

一人がさきに席をたち、あとに残った朴君と申君は、そのあと朴君の下宿から300mほど離れた「民俗村」という酒店に場を移して、トントン酒(濁り酒)の小壺一壺と三分の一ほど飲みたしたのち閉店前に別れた。この時が13日夜11時ごろ。



警察捜査現場

朴君が調査を受け死亡したソウル龍山区葛月洞所在治安本部対共捜査団建物全景(点線の部分が、5回調査室)

朴君は別れるとき、「木曜日(15日)に日本語講座があるからそのとき学校で会おう」といい、酔った状態ではなかった。

朴君はそのあと、夜11時半ごろ、「民俗村」近辺の道端で偶然に後輩の言語学科2年生と出会ったが、これといった話はしなかった。

朴君はもう12時になろうというころに自分の下宿から70mほど離れた同じ科の同級生・朴君(21)の下宿に寄った。

朴君はこの日、同級生の朴君の成績表をかわりにもらってきて、これを渡そうとして寄ったのだが、友人の朴君が留守

だったので成績表を置いていき「下宿に帰る」といって帰ったという。

これが、朴君が周囲の人に目撃された最後であり、朴君はこの日の晩、下宿に帰らなかった。

友人の朴君は、14日午前1時ごろ下宿に帰ってき、朴君が成績表を置いていたということを知り、一緒だった友人の一人と朴君の下宿までいったが、外からみると朴君の部屋の灯が消えており、寝ているものと思いついて帰ってきたという。

一方、朴君の下宿には14日明け方5時ごろ、私服刑事2名が訪ねてきて、下宿の主人・朴経鎬氏(29)に朴君の所在を尋ねたが「知らない」といわれたので帰った。

彼らは、朝6時ごろまた訪ねてきて、朴氏が「家の外に出ていった。今まで帰ってこないところをみると、すでに別のところに連行されたのかも知れない」といったが、彼らは「誰か友達でも来るかも知れない」といって、午前9時まで下宿の内で待って、それから帰った(彼らは管轄警察署職員と思われる)

14日午前10時ごろには、人相服装のちがう刑事4名が「治安本部からきた」と語り、朴君のことには言及せず、朴君の横の部屋の下宿生・河君(24・ソウル大大学院人類学科1年)を「調査することがある」といって連行した。

白紙置き“全部書け”

朴君がソウル龍山区葛月洞の治安本部対共分室5階に連行されてきたのは、

14日午前8時10分ごろ。

この日の朝8時10分ごろ(警察発表)、下宿の前から捜査官たちによって連行された朴君は、まっすぐに対共捜査2団5課2系1班(班長・趙漢慶警衛)取調べ室に連れていかれた。

午前9時16分ごろ、まだ食事前の朴君にご飯ともやし汁が出された。前の日飲んだ酒のせいもあったが飯はまずく、朴君は何も食べただけであった。朴君に冷水が与えられた。そして、取調べが始まった。趙警衛と姜警査はまず朴君に白紙を渡し、「ソウル大社会学科4年朴鍾雲君(26)についての事項と自分の最近の行跡について全て書け」と指示したという。

警察関係者らによると、調査官らは朴君の第一回目の陳述書を読み終えたあと、朴鍾雲君が朴君の下宿に泊ま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ははっきりいうよう要求し、朴君が「そのような事実はない」と否認すると、取調べがきつくなったという。調査官らは、同じ下宿生の河君が書いた陳述書を見せながら、朴君に是認することを要求したという。

これをみた朴君は、数日前朴鍾雲君が自分の下宿に一晩泊まっていたことを認めたという。

調査官らは続いて、朴鍾雲君の所在について、朴君を集中的に追及したが、朴君からは答が得られなかった。

しばらく時間が経過しても朴君が自白しないとみるや、調査官らは、「おまえは現在執行猶予期間中にある。こんどは実刑を受けることになる。こんどは除籍



警察が明らかにした朴君の水拷問の様子

だ！除籍！」といって机をけり、恐怖心をあたえたという。

まったく同じ水拷問を2回

朴君が朴鍾雲君の所在を明らかにしないとみるや、調査官らは、朴君の後ろ髪をわしづかみにし、浴槽に連れていった。浴槽には水がいっぱいにあった。調査官らは、朴君を浴槽の前にひざまずかせ、後ろから朴君の後ろ髪をつかみ、上体を伸ばして顔を水の中に突っ込んだという。この第1回の水拷問で調査官らは朴君から、「鍾雲が市内の読書室で起居している」という自白をひきだしたという。

つづいて調査官らは、「どの図書室だ」といってせきたて尋ねた。朴君が「知らない」と答えると、つづいて2回目の水拷問が始まった。まったく同じ方法だった。朴君が、「うっ、うっ」と声を出しながら全身で抵抗している間に、浴槽の縁の角に朴君ののどの部分が押し付けられ息ができなくなり、急に朴君の体がぐったりしたという。

調査官らは、朴君が呼吸停止状態に陥ったものと思い、頬を殴り気を取り戻さ

せようと顔に水をぶっかけたという。それでも朴君は目を覚まさないという。この時が午前11時20分ごろ。調査官らは、朴君を取調べ室の簡易ベッドに横たえ、口を当てて息を吹き込む人工呼吸をつづける一方、横の部屋の取調べ室に連絡し、医者呼びにいかせたという。

14日午前11時半ごろ、中央大付属龍山病院応急室。治安本部対共分室所属職員2名がここを訪ね、応急室長に身分を明らかにしたのち、「調査中呼吸が不安定な被疑者がでたのですぐに往診してくれ」と要請した。

瞳孔がひらき呼吸停止

同病院内科専門医・呉演相氏(32)は、応急室長からこのような連絡を受け、すぐに気管支索管チューブ栓子バック(空気圧縮器具)、カンフル注射水液など応急処置器具を準備し、当直看護婦の柳さんとともに対共分室職員のあとについていった。

呉氏は、葛月洞対共分室の建物に、この日の午前11時45分に到着、この建物の5階にある2坪ほどの調査室に案内された。

医師である呉氏と看護婦が取調べ室のドアを開けて中にはいると、2、3坪の部屋の右側に簡易ベッドが置かれており、左側にはいすの2つ置かれた机があった。そして、取調べ室の奥の方には、高さ80cmぐらいの低い仕切りがあり、仕切りの向こうにはタイル床に洋式の便器と浴槽が置かれてあるのがぼっと見て目に入

った。便所はドアがなく、便器と浴槽が調査室からすっかり見えるようになっていたのが特異であった。

便所の方に窓があるにはあったが、取調べ室は「密室」のようにつくられていた。取調べ室の中から容易に大小便をしているのも見えるだけでなく、四方の壁は防音になっており、中で大声がしても外に漏れないようになっていた。

このとき調査官3名が朴君をベッドの上のせ、応急救護処置をしており、朴君はズボンだけを身につけて上体は裸であった。

呉氏は、危急な状態であることを直感し、患部をみる前に生死の確認をした。

呉氏はまず、朴君の瞳孔をみたが、すでに開いており、脈拍と呼吸も停止していた。

“水をたくさん飲んだ”と捜査官

呉氏はこのとき調査官に「大便をしている」と語り、朴君がすでに死亡していることを推定したが、心肺機能蘇生のための作業に急いでとりかかった。

呉氏は、心臓マッサージを急いで行い、看護婦は人工呼吸をはじめたが、朴君は蘇生する様子を見せなかった。

呉氏は、朴君の肋骨を拳で殴るなどの衝撃法を用い、手で胸を力いっぱい押し付ける方法で30分間心臓マッサージを施したが、死んだ朴君は生き返るはずはなかった。

呉氏が聴診器を朴君の腹に当てると、ある調査官が「水をたくさん飲んだ」と

いった。聴診器をふたたび肺に移すと水泡音が聞こえた。

肺の中で血液または水液が流れるとき聞こえる「クルルッ、クルルッ」という音は、生きている人の肺からは聞こえない。

呉氏は「死亡」という結論を下し、腹部膨満と皮膚の色が灰色に変色した事実などを確認した。

捜査官らは、呉氏が死亡診断を下したあとも、「ぜったいに死なしてはならない」ととりすがり、病院に運んでくれるよう要求し、息たえている朴君を中央大付属龍山病院に移した。

14日夜8時ごろ、釜山市影島区青鶴洞341の31の朴君の家に40代半ばの壮健な一人の男がやってきて、朴君のオモニはいるかとたずねた。

一人で留守番をしていた朴君の姉・恩淑さん(24)が、「いま誰もいない」と答えるとこの男は「お茶をいっぱい飲もう」といって恩淑さんをそとにつれてでようとした。

“すべてが終わってしまった”

この時ちょうど朴君のアボジ朴正基氏(57)が玄関から入ってきたので、男は、アボジと一緒に家の向いの大河タバンに入ってしまった。

しばらくして朴氏から家に電話があり、「職場の関係のミスター金という人だが少し遅くなる」と語った。

夜10時になってオモニ鄭次順氏(54)が帰ってきた。

「ねえ、そのミスター金という人はひょっとしたら刑事じゃないかい」とオモニは娘に不安な様子でたずねた。

恩淑さんは喫茶店に電話をかけた。

「アボジ、その人刑事でしょう」

「うん」

しばらく後アボジ朴氏が家に帰ってきて何もいわずただ、いますぐソウルに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お金を5万ウォン借りてこいといった。

オモニ鄭氏が「こんな夜中にどこで借りてくるの」といい難色をしめす表情をすると朴氏は、「どうしてもいかにゃならん」といって刑事とともに出ていった。

ソウル行きの夜行列車に乗ると、それまで朴君の身边に何か起こったとだけいって言葉をにごしていた刑事が、朴君が死亡した事実を告げた。

次の日の15日朝、ソウルについたアボジ朴氏から釜山の家に電話がかかってきた。

「念仏の本と哲の写真をもってみんなあがってこい」

アボジの涙まじりの震える声を聞いた瞬間、恩淑さんは呆然としてしまった。刑事が来たということから、弟がデモの関連で警察に連行されたのだとばかり思っていたのが、「念仏の本」と「写真」をもってあがってこいということばに「すべてが終わってしまった」という思いに目の前が真っ暗になってきた。

しぼりだすように“外傷はありませんでした”

午後3時ごろソウルに到着、警察病院霊安室にいった。健壯な男たちが入口のまわりに立っており、焼香室の中にはみずぼらしい朴君の死体安置所が設けられていた。

オモニ鄭氏はまさかという思いが現実であることがわかると泣き叫んで失神、同病院の612号室に運ばれた。恩淑さんがひとりで棺のそばについていた。いつの間にかそとは暗くなりはじめていた。アボジ朴氏は誰に連れていかれたのか姿をみせもしなかった。警察の職員のように見える40代の男が横で何かいい続けていたが耳に入らなかった。

夕方6時半ごろ、外が騒々しいので見ると、記者たちが到着し、焼香所のなかに入ろうとして警察の制止を受けて言い争いをしていった。

この時私服警官がひとり焼香所の外に出て、「遺家族の代表だが記者とは話すことはないので帰れ」といった。

記者たちがこれをあやしく思い、「どなたか遺家族の方はおられませんか」と大きな声でいった。

恩淑さんは、「ここにいます。入ってきて下さい」といって、その間の経緯を説明しはじめた。その時アボジ朴氏が帰ってきた。

朴氏は、気がおかしくなったように記者たちにわっと怒りをぶつけていった。

「息子が悪かったから死んだんだ」

死体を確認したかという記者たちの質問に朴氏は、「した。きれいだった。外傷はなかった」と、きつい慶尚道なまりで、しぼりだすように叫んだ。

恩淑さんが、記者たちと話しているのを見て朴氏は、恩淑さんの腕をつかみ外に出て行ってしまった。

“煮え湯を喰らわしてやろうか”

この日の夜8時10分ごろ、朴君の死体は漢陽大学病院に移され、9時5分から剖検に入った。仏教信徒である朴氏は剖検に反対したが、結局警察の処置にしたがった。この日の剖検は、朴君の叔父・朴月吉氏(36)、漢陽大学病院当直責任者・朴東皓博士の立会いのもと、国立科学捜査研究所・黄迪駿博士の執刀により実施された。写真師は剖検進行状況をカラーで50枚ぐらい詳細に撮影した。朴君の兄・鍾富氏(29)も剖検室に入ったが剖検が始まるやいなや目を開けてみていられないのかすぐに出てきてしまった。夜10時25分、剖検がおわり、死体はふたたび警察病院霊安室に移された。

この時、霊安室に夜勤の記者たちが押し寄せたが警察の制止を受けて言い争いになった。

治安本部のある幹部は、道ばたに膝をついて、「どうか帰ってくれ」と哀願した。

私服警察20名余りが入口に立ち、外部の人間の出入りを統制するなか、家族10名余りが徹夜で棺のそばについていた。

16日朝、はやばやと霊柩車が霊安室前に待機した。

16日朝8時ごろ、朴君の柩が霊柩車に乗せられ、家族たちが同乗した。

記者たちが車窓に接近し、家族と話を

しようとする、警察は記者たちの首ねっこをつかみ、「煮え湯を喰らわせてやろうか」と脅かした。8時25分ごろ、霊柩車が出発、30分余りで壁蹄(ピョクチュ)火葬場に到着した。

朴君の死体は第6棺ぼう室に入れられ2時間の間火葬にふされた。

朴君の死体剖検に家族代表で立ち会った叔父の朴月吉氏が「事実は事実通りいなければ。哲のからだには血の痣(あざ)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と語ると、だれかが、「死因もはっきりしないのにこんなにあわてて火葬してしまっているのか」といった。

ひとにぎりの灰になり河に

午前11時10分ごろ、火葬が終わり、朴君の遺骨は焼骨室に移され、白い灰にかわってしまった。白い紙にきれいに包まれた遺骸が朴君の兄・鍾富氏の胸に抱かれた。

遺骸をかき抱く兄、遺影をもった義兄、アボジ、親戚のアジュモニを乗せた黒い警察の乗用車が臨津(イムジン)江に向けて出発した。5分ほど走って乗用車はふたたび方向を変え、火葬場近辺の川に向かった。

「哲よ、たっしゃでな」哀切をおびた声が冷たい川の水の上にいっせいに溢れた。アボジ朴氏は、最後に白い紙を川に浮かべ、「哲よ、アボジはもう何もいうことがない」と別れの挨拶をした。〈特別取材班〉

〔東亜日報1月19日〕

貧しいなかでも
明るくくじけなかった21年
警察の拷問で死んだ朴鍾哲君の短い生涯



貧しかったが睦まじい家庭で生まれ、いつも笑顔を忘れなかった快活な性格の朴鍾哲君。朴君は、64年釜山で生まれ、高校を卒業するまでずっとここで育った。

『いつも明るく快活で、社交的だったので交友関係が円満で自主精神が強い』『ところがひろく誠実で自分の課題に最善を尽くす』—朴君が81年から3年間通った釜山の恵光高校の学籍簿の行動発達欄には朴君の性格についてこのように記録されている。中学校時代には学級で2、3番の成績をずっと維持し、高校時代には3年皆勤賞を受けた着実な学生であった。

『幼いときからよく勉強ができ、哲がソウル大に合格したとき、家族みんなが将来りっぱな教授になると期待していました』朴君の姉恩淑さん(24歳・釜山産業大4年)は、弟が三人兄弟のうち一番勉強ができ、ソウルに留学させ、家族の期待が大きかったと語った。

朴君の父・朴正基氏(57)は、釜山市内青鶴のポンプ場警備員として勤務、20万ウォンの薄給で子供らの学費をまかなおうとかなりの苦勞を甘受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母の鄭次順さん(54)も職をさがしてこまごまと貯めたお金で家計をやりくりしなければならず、朴君兄弟も苦しい家庭の事情をよく理解し、勤儉節約が身にしみついていた。

84年3月、ソウル大文学部言語学科に入学した朴君は、一年の一学期を終えて、二学期にはいり学科代表をひきうけてからいわゆる「運動圏学生」の仲間入りをした

とのこと。

朴君は、二年になって学生運動に積極的に参加し、85年5月にはじめて街頭デモで拘束され、拘留5日の宣告を受けた。

朴君は、三年に進級するや街頭デモを主導、86年4月集示法違反嫌疑で拘束され、執行猶予の宣告をうけ3カ月後に釈放されたからは、がらっとかわった様子を見せた。学校の授業が終わるとまっすぐ下宿に帰り、ほとんど外出せず、タバコも絶ったということだ。

朴君の学生活動も目に見えて消極的になっていった。周囲の人によると朴君のこのような変化は、家の父母と兄、そして同じ科の同級生である女友達のCさんのねばりつよい説得が大きく作用したとのこと。

朴君はとくに、来年2月に定年退職をひかえているアボジをたいへん心配していると友人にしばしば語ってみたいという。また、健康に神経を使い、毎日学校内にある平行棒運動と腕屈伸をし、朴君の体は、筋肉質の健康体質であったということだ。

下宿の主人、朴経鎬氏(29)は、『鍾哲は、明るく素朴な学生でした』『鍾哲にデモの前歴があったことは知っていましたが、最近ほとんど家にこもっており、たずねてくる友人も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と語った。

朴氏によると、朴君が最近になって『ちょっと勉強しなきゃ』とよく口にしていたとのこと、日本語の冬季講座を申し込んだのもそのような動きの一つとのこと。

朴君の周囲の人たちは、朴君がこうして勉強しようとしていたときに連行され、こんな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を非常に残念がった。

釜山市影島区青鶴洞377の朴君の家で、は、オモニの金さんが倒れて寝入っており、まだ衝撃からたちなおれないアボジの朴氏がたずねてくる親戚と近所の人たちの慰勞を受けていた。

<釜山=尹相参・金会平記者>
【東亜日報1月19日】

II. 当局発表

「朴鍾哲君拷問致死事件」 警察発表 <全文>

1. 概要

治安本部は、さる1月14日、対共捜査団で左傾容共活動嫌疑で調査を受けていたソウル大生・朴鍾哲君の死亡と関連して特別調査班を構成、この間朴君の連行捜査過程、死亡原因を厳正かつ徹底的に究明した結果、担当捜査官の過酷行為が確認されたため、当時調査捜査官警衛・趙漢慶と警査・姜鎮圭を特定犯罪加重処罰法(過酷行為による致死)違反嫌疑で拘束し、その監督責任を問い、対共捜査2団長を職位解除措置にした。

2. 朴鍾哲の捜査経緯

○朴鍾哲の嫌疑事実

▽86・10・31

ソウル大アクロポリス広場で人文大動員分子として「反革命策動粉碎および制憲議会召集のための闘争決議大会」デモを主導

▽86・11・20 20:00ごろ

容共利敵団体と規定されたソウル大三民闘委と民闘の背後組織であるソウル大民推委事件の重要手配者である朴鍾雲(ソウル大社会福祉4年除籍)を同人の下宿に一泊隠匿させ、87年1月8日夕方、逃避資金を提供するなど、同手配者と連携活動

▽85・5・24

舎堂洞街頭デモに加担し、南部地院で拘留5日

▽85・6・1

九老洞街頭デモに加担し、同地院で拘留3日

▽86・4・11

新堂洞街頭デモ主導で、86年7月15日東部地院で懲役10カ月に執行猶予2年

▽86・9・1~9・21の間(21日)有期停学などをうける

○朴鍾哲の連行経緯

▽朴鍾哲がソウル大民闘委員長・南澤範(言語学科4年)および同大不純地下組織の核心分子として85年アメリカ文化センターろう城事件、京仁地区労学連帯闘争など各種反国家的左傾容共騒擾を背後操縦してきたソウル大民推委事件の重要手配者である同大の朴鍾雲(社会福祉4年除籍)らと連帯活動中であるという情報を入手し、87年1月14日午前6時から下宿の近くで潜伏勤務し、午前8時10分ごろ下宿から同人を任意同行させた。

▽朴君は対共捜査団調査室で、87年1月14日午前8時40分から捜査官警衛・趙漢慶の立会いで警査・姜鎮圭から上記の嫌疑事実について調査を受けた

3. 朴鍾哲の死亡経緯調査

○自体特別調査班構成

▽治安本部は、同事件の厳正な事件究明のために治安本部捜査部長・李康年警務官を班長とし、調査要員16名を投入、1月17日~1月18日の両日、朴鍾哲

君の捜査を担当した警衛・趙漢慶、警査・姜鎮圭と関連民間人など全部で16名を徹夜審問する一方、国立科学捜査研究所の剖検結果を土台に朴君の死亡経緯を集中捜査した。

▽死体剖検は、1月15日、ソウル地検の指揮を受け、漢陽大付属病院で、国立科学捜査研究所が同病院の医師と遺家族の立会いのもとで実施した。

○死亡経緯

ソウル大民推委事件の重要手配者・朴鍾雲の所在を知っていることが確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陳述を拒否していた朴鍾哲から事実を知るための威嚇手段として捜査官の警査・姜鎮圭と捜査官の警衛・趙漢慶は、同人の頭を1回浴槽の水にしばらく漬けてひきだしたが、引き続き陳述を拒否し頑強に反抗するので、ふたたび頭を浴槽の水に押し入れる過程で、急所の首の部位が浴槽の縁（高さ50cm、幅6cm）に押し付けられ窒息死したものである。

○死体剖検結果

▽死亡原因は、頸部圧迫による窒息死である。

▽死亡時間は、1月14日11時20分ごろである。

▽腹部膨満は、捜査官の人工呼吸と初診医師の呼吸注入器使用により、空気が胃に入り生じた一時的現象である。

▽肺の組織を検査した結果、水分は検出されず、肺の気孔現象は、過去の肺結核の病歴による肺損傷の跡である。

▽左手部位と頭部位の打撲傷は、連行過程で抵抗したため生じた負傷である。

▽死亡原因以外の上記剖検内容中、頸部圧迫以外の事項は、朴君の死亡原因と直接的な関係はないものと判明した。

4. 警察の措置

○調査担当官の警衛・趙漢慶、警査・姜鎮圭は、特定犯罪加重処罰法4条2-②違反嫌疑で拘束捜査（過酷行為致死＝無期または3年以上の懲役）

○対共捜査2団長の警務官・田錫麟は職位解除

5. 謝罪の言葉

○今回の思わぬ事件について、警察の責任者として心から遺族と国民の前に謝罪申し上げます。

○わが国の関係法律（特定犯罪加重処罰法など）は、警察が事件捜査をするにおいて、どのような場合にも被疑者に対する暴行はもちろん過酷行為を容認しないよう規定するなど制度的装置ができていにもかかわらず、一部捜査官らの過剰な職務意欲によって、このような不祥事が発生したことは、非常に遺憾なことであり、全警察は深く反省しております。

○われわれ警察は、今回の事件を契機として今後はどのような場合にもこのような不祥事が再発しないよう、骨身を削る覚悟で国民の生命と財産を守る真の奉仕者としての責務を全うしていく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

○国民の皆様は、このたびのような不祥事を厳しくご叱責くださるとともに、今後、過酷行為が徹底的に根絶され、自由民主主義を破壊しようとする極少数の左傾容共分子を完全に剔抉（てっけつ）するときまで、警察があたえられた責務を誠実に遂行できるよう変わらぬ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

検察 “電気拷問・道具使用なかった”

「拷問致死」捜査発表 浴槽、空の状態に水をいれ/太もも3カ所ボールペンで突く連行、警察発表の1時間半前/上司2名は事後に知った嫌疑無し…監視TV作動せず

鄭錫永ソウル地検長は24日午前10時、ソウル大生朴鍾哲君拷問致死事件に対する検察の捜査結果を発表、「朴君は2回にわたる水拷問の途中、窒息死したものであり、電気拷問などのほかの拷問についての嫌疑はなかった」と述べた。鄭検事長は「公訴維持に必要な事項以外にも疑問点の出たすべての点について調査した」とし、「警察の発表内容はいくつかの細かい部分を除いては事実であった」と語った。

この席には、この事件の捜査を担当したソウル地検刑事2部の申昌彦部長検事と安商玉検事が同席、補充説明をした。

検察の公訴状に明らかにされた二人の警察官の水拷問は、14日午前11時10分ごろ、治安本部対共捜査2団調査室の浴槽に水を満たしたのち、朴君の上衣をぬがせ姜警査が両腕を朴君のわきの下にいれ首の後ろで両手をくんではいじめにし、頭と上半身をおさえつけ、趙警衛は左手で髪をつかみ右手で頭を強くおしつけ水の中につかみ入れたのち1～2分後に引っ張り出したとされている。

つづいて20秒してふたたび頭を水の中にいれると朴君が暴れて抵抗し、頭を水の上にあげると姜警査が足とひざで朴君の下半身を強くしめつけ、趙警衛が頭を水の中に数分間押し入れるあいだに朴君の首が浴槽の縁に押し付けられ窒息死したというものである。

鄭錫永地検長一問一答

—水拷問の外に電気拷問などの過酷行為はなかったか。
▽なかった。電気が体に触れると皮膚に

炭化現象がでてその周囲には赤い斑点が現れるが、まったくそのような痕跡はなかった。手の甲にあった傷は皮下出血であった。

—肺の中に発見された血斑はなにによってできたのか。

▽朴君が以前、結核を患い肺に結節があったが、今回浴槽の縁に胸が強く押し付けられてそれが破れて出血したものである。

—少なくとも窒息死にまでいたったのだから水拷問の回数ももっと多くなければ酸素不足現象が重ならないはずだが。

▽水拷問はただ2回だけだ。最初は1～2分、20秒後に2～3分間した。

—直接の死因は気道が浴槽の縁に押さえつけられたことによる窒息死である。

—調査室内に浴槽がある理由は…。

▽風呂にはいるのに使ってきた。事件当日は午前10時50分ごろ調査を開始し、趙警衛が姜警査に水をいっぱいにさせた。

—では最初から水拷問を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のか。

▽……（答え無し）

—15カ所の傷のうち後頭部の出血は棍棒などによる傷ではないのか。

▽剖検医師である国立科学捜査研究所の黄迪俊氏も道具使用による傷ではないと陳述した。水拷問中反抗し、浴槽の壁と床に全身を打ちつけ傷ができたというのが鑑定結果だ。

—その他暴行などはまったくなかったのか。

▽ほかの殴打行為はなく、趙警衛がボールペンの先で左の太股を3回突いたこと

ぐらいた。

—上部の拷問黙認の事実については…

▽対共捜査2団5課長・劉丁邦警正と2係長・朴元澤警正ら2名を調査したが、朴君が死亡後にこの事実を知ったものとわかり無嫌疑処理にした。

—調査室内に閉鎖回路TVカメラがあったとのことだが…

▽設置されているがこの間まったく使用していなかった。監督者らもモニターしてはいなかったと陳述した。

—連行時間はいつか。

▽午前6時40分下宿から連行され、7時10分ごろ対共分室に到着したもので、警察発表とは若干食い違う。連行警察官6名すべて同じ陳述をした。

—朴君の死体を3~4ヶ所も移したのは、検事の検死妨害行為ではないか。

▽最初は何んとしてでも生かそうとしてそうしたのであり、また保安上の理由も

公訴状 <全文>

被告人趙漢慶は治安本部対共3部5課2係所属警衛、同姜鎮圭は同じ係に所属する警衛であり、それぞれ対共捜査業務を担当している警察官であったが、ソウル大学校人文学部言語学科3年・朴鍾哲（男・21歳）が同校民闘委員として街頭デモを主導して拘束され、1986年7月15日ソウル地方法院東部支部で懲役10ヵ月執行猶予2年の宣告を受けても引続き各種学内外のデモなどを主導するのみならず、ソウル大民推委事件の重要手配者である朴鍾雲（25歳・ソウル大社会科学学部社会福祉学科4年除籍）と連携活動をしているとの情報を入手し、同人に対する調査をすることを計画した後、1987年1月14日6時40分ごろ、被告人趙漢慶および公訴外の警衛・黄正雄ら6名が、ソウル冠岳区新林9洞246の26、朴鍾哲の下宿に行き同人を任意同行し、同日7時10分ごろ、ソウル龍山区葛月洞98の1、治安本部対共2部の建物の5階第9号調査室につれてきて、被告人・趙漢慶が人的事項など簡単な審問をし、朝食と休息をとるようにさせたのち、同日10時50分ごろ、被告人らは一組になり

あった。死体を隠す意図ではなかった。

—腹部膨満現象は…

▽人工呼吸のせいだ。あまり強く口をつけて息を吹き入れたので趙警衛は眼が充血した。

—死体を迅速に火葬処理した理由は…

▽検死が済み、証拠収集が終わればすぐに遺族に引き渡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火葬は家族が決定したことだ。

—送致5日目に迅速に起訴した理由は…
▽この事件についての関心が高く、早く知りたいという国民の気持ちをくんではやく処理した。

—検察捜査がなまぬるいという世論があるが…

▽検察ができる調査はすべてした。事実、公訴維持に必要な客観的犯罪事実をこえる部分まで調査した。

各種デモ主導嫌疑とサークル関係および上朴鍾雲の所在などに関して審問をしていたところ、同人が事実通りに答えないので事実を引き出すための脅迫手段として、共同で同日11時10分ごろ、被告人・趙漢慶は、同姜鎮圭に上調査室内にある浴槽（長さ123cm、高さ57cm、幅74cmの人造大理石製）に水を満たさせたのち、被害者・朴鍾哲の上衣をぬがし浴槽の前までつれていき、被告人・姜鎮圭は両腕を同人のわきの下にいれ首の後ろから両手を組んで頭と上半身を押しさえつけ、同趙漢慶は髪をつかみ右手で頭を強くおさえ水の中に押し入れ約1分ないし2分後引出し、約20秒してふたたび頭を水の中に押し入れたところ、同被害者がひどく暴れて頭を水の上にあげる時、被告人姜鎮圭は足とひざで同人の下半身を強くおさえてしめ、同趙漢慶は上のような方法で上朴鍾哲の頭をふたたび数分間水の中でおさえ続けているあいだに同人の首が浴槽の縁（高さ57cm、幅6.5cm）におさえられ息がつけなくさせることによって、同日11時20分ごろ頸部圧迫による窒息により死亡するに至ったも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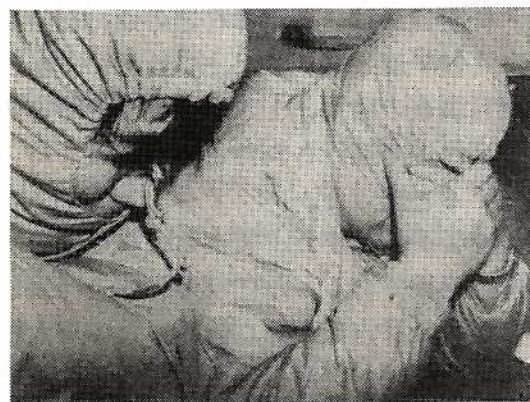
Ⅲ. 新聞記事より

〔韓国日報1月17日〕

朴君連行・死亡時間 など警察発表と違う ソウル大生死亡事件 きのうから捜査本格化

警察で調査中ショック死したという事実だけが発表されただけで火葬まで終わらされたソウル大生・朴君（21・言語学科3年）の死亡経緯についての捜査は、死亡4日目の17日午後遅く本格化した。

この日の午後まで警察は一切口を閉ざしたままで、検察が真相捜査をしようと思われたこの事件は、急に「厳格な警察自身による捜査の後処罰の方針」に急旋回、正確な死因を19日に発表することとなった。



顔を覆う警察官。この二人が拷問をした警官か？

急転回の時刻は、この日午後6時30分。検察と警察は、警察捜査関係者に対する捜査を治安本部特別捜査チームがみずから調査に着手したと同時に発表した。

〔東亜日報1月17日〕

大学生調査中死亡事件 新民臨時国会要求

警察で調査中に死亡した朴鍾哲君事件は、新民党が17日、真相究明のための臨時国会召集と国会内真相調査特別委員会の構成を要求したことで政治問題化した。

新民党はこの日午前、緊急拡大幹部会議を開き、朴君死亡事件は、党真相調査団の調査結果「拷問致死」事件であると規定、臨時国会召集を要求する一方、国政調査権を発動した真相調査特委の構成を要求することにした。これにより新民党は、来る19日の与野総務会談を通じ臨時国会召集を与党に公式に要求することにした。

一方、民正党はこの日午前、党政協議と党職者会議をもち、朴君事件の真相とこの問題がもつ政治的意味を検討した。

新民党調査団中間報告

再剖検せず火葬した事実などを指摘

ソウル大生朴鍾哲君死亡事件を調査した新民党の朴燦鍾委員ら5人真相調査団は17日、党中央に提出した中間報告で『朴君は拷問などの過酷行為によって死亡に至ったと認定される』と語った。

調査団は、この事件について▲ソウル地検検事長にこの事件を早急に告発し、▲法務部長官および検察総長には過酷捜査の厳断を要求し、▲国会法事内務委に真相調査を要求するなど、このような事件の再発防止のための強力な対策が必要であると建議した。

調査報告書は、朴君が拷問などの過酷行為をされたことの証拠として、▲朴君が連行されて数時間後に急死する身体条件になかった、▲死亡当時、大便が下着についていた、▲医者死亡診断後、警察は死亡現場を保全せず、遅れて検察に報告、剖検にふした、▲再剖検の必要があり火葬をしてはなら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火葬した点などをあげた。

新民党調査団は、『朴君の剖検は姓名不明の国立科学捜査研究所関係者によってなされており、一部で報道された「剖検執刀の漢陽大の黄ヨクヒョ教授という人物は漢陽大にいない』と語り、『朴君の下宿の主人と同期生らの証言によると、朴君を14日午前下宿から連行したという警察発表が、嘘であることは明白だ』と主張した。

新民党調査団は、16日午後、警察病

院の院長および検死医師、中央大付属龍山病院の担当医師、漢陽大付属病院関係者、朴君とともに酒を飲んだことのあるソウル大同期生らを対象に調査をしたと明らかにした。

〔東亜日報1月20日〕

“暴行・電気拷問による死亡”

新民党のソウル大生朴鍾哲君拷問致死事件真相調査委員会（委員長朴燦鍾議員）は20日、第2次調査結果を発表、警察の19日発表は、疑問点が多いと指摘し、検察の公正な再捜査を促求した。

朴委員長はこの日の発表を通して、朴君事件の独自調査をした結果、朴君の連行時間が警察発表とは8時間もの差があり、朴君の死因も水拷問過程ではなくひどい暴行と水拷問の後の電気拷問過程で死亡したものと断定すると主張した。

朴委員長は、警察は朴君の連行日時を14日午前8時ごろと主張しているが、独自調査の結果、13日の夜12時ごろ下宿付近で連行されたという確証を持っていると語った。

朴委員長はまた、警察は直接死因を水拷問過程でおこった頸部窒息死と発表した。朴月吉氏と死亡診断した中央大付属病院医師・呉演相氏の証言と、朴君の死体にあらわれた何ヵ所かの血斑をみると暴行の跡があり、とくに親指と人差指の間の傷跡は明らかに電気拷問によるものであると断定せざるをえないと主張した。

咸錫憲翁ら声明

咸錫憲翁と金在俊牧師は19日午前ソウル鍾路区蓮池洞にあるキリスト教会館内の韓国基督教協会協議会（KNCC）人権委事務室でソウル大生朴鍾哲君の拷問致死事件と関連して声明を出し、「人間としての尊厳と道徳的良心をまったく失った行為」だと主張した。

各大学 糾弾ビラ

西江大で19日午前11時頃、「警察の取調べを受けていたソウル大生朴鍾哲学友が殺害された。」というタイトルのビラが張り出された。

学生会館前の掲示板に張られたこのビラは、「治安本部は拷問を即刻やめろ」と主張し、「朴鍾哲学友の死亡原因を我々の手で究明しよう」とよびかけていた。

梨花女子大でも今日（1/20）昼、正門前の掲示板に「拷問によって殺害された朴鍾哲君を哀悼して」というタイトルのビラが張り出され、「朴鍾哲学友の死は現政権の専制を現したものと主張し、拘束学生の全員釈放と拷問責任者の刑事処罰等を要求した。

高麗大生200余名 拷問致死 抗議デモ

高麗大生200余名は19日午後1時40分頃から構内の図書館前で故朴鍾哲君（21・ソウル大言語学科）の追悼式

を開き、弔辞を朗読し焼香をした後、構内を40分間にわたって拷問に抗議するデモを行った。

学生達はこの日「誰が我々の友人鍾哲を殺したのか」と黒い布に白い字で書いた横断幕と「先進祖国に拷問殺人とはどういうことだ」と書いたプラカードを持ち校門の外10mまで進出、「殺人捜査を恣のままにする治安本部を解体しろ」、「我々の学友鍾哲を生き返らせろ」等のシュプレヒコールを叫んだが、警察の制止のため構内に入り、「神のための行進曲」等の歌を歌いながら学生会館前まで行進をした後、午後2時20分頃自主解散した。

学生達は構内の図書館、学生会館前など3箇所に「故朴鍾哲烈士神位」と書かれた位牌を用意した焚香所と弔慰金募金箱を設置した。

民推協対策委員11名

ソウル大朴君の遺体に焼香

民推協「朴鍾哲君拷問殺人事件対策委員会」所属の国会議員・弁護士11名は19日午後ソウル大言語学科事務室に設けられた朴君の遺体安置所を訪問して焼香し、弔慰金を伝達した。

遺体安置所には日曜日の18日にも学生30余名が訪れ、夜を明かし、19日にも学生200余名が焼香した。

ソウル大朴君追慕祭
胸に黒いリボン……
千余名参席



朴鍾哲君追悼式に先立って、同僚学友らが朴君の遺影を掲げ校庭で沈黙デモをしている。

故朴鍾哲君追慕祭が20日午後2時、ソウル大冠岳キャンパス学生会館2階ラウンジで、学生・学父母・在野団体人士ら千余名が参席する中でとりおこなわれた。総学生会の主管によって進められたこの日の追慕祭では、簡単な紹介・焼香がおこなわれ、参席学生らは全員胸に黒いリボンをつけていた。総学生会総務部長・呂運哲君が焼香したあと、ひざをついたまま「両手を握り締め、両目をかっといからせたまま、もっとも平凡でもっとも真実に生きた故朴鍾哲学兄はいま、われわれのもとを去ってしまった」という内容の弔辞を読み始めると、ラウンジにぎっしり集まった学生たちは、あちこちで泣きはじめた。つづいて昨年4月、

新林洞で焼身自殺をした金世鎮君のオモニ金順丁さんは、「先に旅立った、世鎮をはじめとする数多くの兄・姉たち、また先烈たちとともに天の国で安らかに眠りなさい」と語りかけ、「私たちは君が灯してくれたたいまつを高くかかげ、それが白頭山から漢拏山までこの国の全土を明るく照らすときにこそ君の名を再び呼ぼう」と語った。学生たちはつづいて、「治安本部を解体せよ」などのスローガンを叫んだ後、朴鍾哲君が生前よくうたっていた「その日がくれば」などのうたを整然と歌った。学生たちは午後3時10分ごろ声明書を採択し、アクロポリスにて「二万学友決起大会」を行ったがデモはなかった。

〔韓国日報1月21日〕

東巨戯評

白寅洙



ソウル大言語学科事務室につくられた朴君の焼香所で同僚学友らが徹夜で朴君を追慕した。



拷問のない社会を

1月26日、明洞聖堂でのミサが終わった後、修道女・神父および信者らが約3000名が十字架と朴鍾哲君の写真掲げ、沈黙デモをはじめたのを警官が遮っている。

朴君拷問致死WP紙詳細に報道

〔ワシントン=金炳武特派員〕ワシントンポスト紙は20日、朴鍾哲君拷問致死事件に対する韓国警察の発表を外信面に比較的詳細に掲載し、国際赦免委（アムネスティ・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最近の報告書を引用、韓国内の拷問に関して信憑性のある報告が多くあるが、関連した官吏が起訴されたのはそのうち2つの事件の場合だけである、と報じた。

同紙はまた、韓国の野党がこれまで、政治問題と関連して逮捕された人びとに対し警察が拷問を行ってきたと主張してきたが、韓国当局は、少数の例外を除いて、ほとんどこれを虚偽であると一蹴（いっしゅう）してきたと報道した。臨時国会開会と全斗煥大統領の謝罪など、野党の要求内容と事件の概要を報じたWP紙は、韓国警察は当初朴君がショックで死亡したと発表したのが、噂が広まるや特別調査班を構成、朴君が拷問で死亡したことを認めたと報じている。

同紙は、昨年夏発生した性拷問事件の内容と野党の主張、当時の警察発表なども詳しく伝えて、韓国の反体制人士らは、詳細な拷問内容をあげて被疑者が拷問を受けてきたことをずっと以前から主張してきたと報じた。

〔韓国日報1月22日〕

Opposition in Seoul Urges Torture Inquiry

Resignations Sought in Student's Suffocation

By John Burgess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

TOKYO, Jan. 19—South Korea's main opposition party today demanded a special National Assembly investigation and the resignation of senior officials following the disclosure that police tortured and killed a student during interrogation.

The opposition also pressed for a statement from President Chun Doo Hwan. "President Chun must personally apologize to the people for this," Kim Young Sam, one of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s unofficial leaders, said in an interview.

The party's call followed a formal admission today by South Korea's national police chief that a 21-year-old university student died of suffocation last week after his head was forced into water in a bathtub during a police interrogation.

National police chief Kang Min Chang said two officers had been arrested and charged in connection with the death, which he called "very regrettable" and a violation of a ban on using violence against prisoners.

The opposition has frequently alleged that the South Korean police use torture against persons arrested on politically related charges. In all but a small number of cases, the government has labeled the charges false.

According to an official account, the student, Park Chong Chul, was arrested at about 8 a.m. Jan. 14, taken to a central Seoul police facility and questioned about alleged antigovernment activities.

Interrogators pushed his head into the water-filled bathtub twice, Kang said. The second time, his neck was pressed against the top of the tub and he suffocated. He died at about 11:20 a.m. the same day.

Two interrogators, Lt. Cho Han Kyung, 42, and Sgt. Kang Chin Kyu, 30, were arrested and charged under a South Korean law involving special crimes, officials said. A police superintendent, Chun Suk Rin, was relieved of his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incident.

Park was a junior majoring in lin-

guist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s most prestigious learning center. According to a Seoul newspaper, he had twice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and had been sentenced to 10 months in jail. He had not served the sentence, however, because it was suspended for two months.

After his death became known last week, police said he died of "shock." With rumors circulating widely, they formed a special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incident and today Kang acknowledged in a press conference that he had been tortured.

Kim Young Sam said the opposition party had called for convening a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o discuss the case and forming an assembly committee with broad investigative powers. He said the police chief and home affairs minister should take responsibility and resign.

The opposition has frequently called unsuccessfully for the resignation of members of Chun's cabinet.

Last summer, the party led a campaign against the government's alleged use of sexual torture against female prisoners. Those protests, which the government attempted to ban by force, focused on a 22-year-old female labor organizer who said a policeman had forcibly committed a variety of sexual acts against her during a night-time questioning session in a police station.

Prosecutors, however, said that an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officer had made her take off her jacket, used abusive language and struck her lightly on the breasts and that this did not constitute sexual abuse. The policeman was dismissed but not prosecuted.

Over the years, dissident groups have made detailed allegations of torture of prisoners.

Amnesty International, the London-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said in a recent report that it knows of many credible reports of torture in South Korea but only two cases of officials being prosecuted for it.

IV. 団体声明

1. 不法拘禁者家族一同・民主化実践家族運動協議会〔1987年1月20日〕

不法連行・長期拘禁・拷問・容共ねつ造はこの地から追放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二千余名の光州民衆の虐殺によって出帆した第五共和国は、その出発から殺人魔的暴力性と野獣のような非道徳性を政権の本質としている。現政権はまた、みずからの長期執権のために、学園で、工場で、農村で遼原の火のごとく勢よく燃え上がる民主化運動を無慈悲にも弾圧し、社会全般を恐怖の雰囲気の中におとしこめている。かれらは最近、全国労働組合連盟推進委員会（全労推）事件といゆるML党、反帝同盟党事件を不法連行と長期拘禁、無慈悲な拷問によってねつ造し、国民にあくらつな宣伝を繰り返している。

現政権は、1986年一年で3400余名という膨大な数字の良心囚を拘束し、1986年11月から現在まで、またもや国家安全企画部・治安本部・保安司令部などあくらつな捜査機関を総動員し、自由と平等、正義と民主主義を実現するために闘っている民主化勢力を容共利敵として罵倒・拷問・投獄し、みずからの長期執権を画策しているのである。かれらの暴力的弾圧のうちもっとも卑劣で野卑な行為は、すべての民主人士に対し敢行された不法連行および野獣にひとしい拷問行為である。1981年6月、全民連事件関連者に対する60余日間の長期拘禁から現在国家安全企画部に不法拘禁されている数十名にいたるまで、現政権は、民主人士を令状なしに強制的に連行し、不法に拘禁している。彼らは、そばでみても、おどろおどろしい恐怖雰囲気をかもしだす建物の中で、あらゆる拷問装置を備えておいて、「お前のような奴は死んでも誰にもわからない」「おまえ共産主義者だろう。アカだろう」といい自分たちの作っておいた脚本どおりにむりやり自白するまで、浴槽に逆さにほうり込み水とからし粉を食わせ、電気で焼き、鉄パイプでめったうちに殴りながら、連行者を50日・60日も拘禁しているのである。

今回、安企部に不法連行された事態は、11月27日の金祥賢の連行をかわきりに、11月29日金成植、12月15日李春子・姜仁子、12月18日金明煥・李勝煥・河暎玉、12月19日金景煥、12月22日金燦、12月23日尹聖玖、12月31日李鎬均・趙京淑、1月2日崔敏・金哲洙・李善姫、1月4日河潤淑・車鎬政、1月5日閔炳斗・睦惠貞、1月7日朴永泰など、家族によって確認された連行者の数だけを見ても、今回の事態の深刻さを知ることができる。

かれらを連行するとき捜査官らは、自分の身分も明かさず強制的にひっぱっていった。しかし、かれらの乗ってきた自動車のナンバー（ソウル1な-3725）によって、かれらが安企部所属の人間であるという事実があきらかになり、家族たちは南山1号トンネル入口にある安企部に行き、所在確認と面会を要求して継続して闘っている。しかし、安企部の担当捜査官の答は、捜査がもっと進まないことと確認できないというものであり、中部警察署情報課長なる者がでてきて、家族が集団で行動するのは業務妨害に当たるとして、家族らを連行すると脅迫をこととしていたが、1月15日には、息子・娘・夫の面会を要求して絶叫する家族たちを中部署に連行し、オモニと夫

人ら9名を二日以上留置場に連れ、「安企部はほかとは違う。その前に二度といくな」と二度と騒乱を起こさないという覚書を強要した。

国家の安全を企画するという国家安全企画部、いわゆる安企部という悪名高い捜査機関は、いったいどんな所であるからほかの所とは違うのか？ 殺人魔全斗煥の犬のような腹心・張世東を大将としている安企部は、民主人士らを令状なく捕まえて、生死すら確認してくれなくてもいい治外法権地域であるというのか？ でなければ殺人免許をうけた特別機関だということのか？

人を殺す殺人免許証を發布されたもう一つの捜査機関・治安本部では、実際に暴力殺人がしてかされたではないか？ 捕まえるやいなや勇気をくじくために無条件にフルコースにまわすという拷問の実態、すなわちいったん浴槽にほうりこみ水を飲ませ、逆さ吊りにしてからし粉を食らわせ、電気で弱く・強く焼きまくり、鉄パイプ・げんこつなどで、しばりつけておいたものを死なない程度にめった打ちにし、そうして何時間ものあいだ半殺しのめにあわせて調査を始めるという、気が違ったような末期的なやり方をみると、朴鍾哲学生の死は、運悪く死んだという偶然の死ではなく、いま監禁されている百余名の青年・学生・労働者、いや民主と正義を渴き求めるこの地のすべての民衆がやられるかもしれない、われわれすべての凄惨な現実なのである。

かれらのこのようなあくらつなやり口をみれば、現在不法拘禁されている百余名と現在もひきつづき捕まえられている民主青年、学生、労働者らに対して殺人魔のような拷問行為が行われていることは火をみるように明らかである。実際に安企部で調査を受けてきた人の話によると、各房に拷問される悲鳴の音が聞こえてきて、調査する部屋が足りないほどに多くの人々が拘禁されているという。かれらは、拘禁者たちを殴打し、非人間的なあらゆる拷問によって第2、第3の容共ねつ造を推進しているのであり、そのうち官製言論は、あらゆるメディアを動員してねつ造劇を大々的に騒ぎ立てるのである。50日、60日も家族との面会さえさせず拘禁し、自分らの思うままに人の生命までも脅かしている安企部と治安本部、保安司などの蛮行は、全国民の前に日々あきらかにされていかねばならない。

大韓民国憲法第11条3項「逮捕・拘禁・押収・搜索には検事の申請によって法官の發布する令状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最低限の法律的手続きすら完全に無視するという不法行為を行っている安企部と治安本部、なかでもより悪名の高い安企部は、すべての拘禁者に対する不法拘禁、拷問行為を中止し、われらの民主青年・学生・労働者たちを釈放し、容共ねつ造行為を即刻中止せよ。

また、われわれは、安企部と治安本部を下手人にし、朴政権末期を凌駕する、民主勢力に対する殺人魔のような暴力行為を行っている現全斗煥軍事独裁政権を、全国民の前に告発し、あわせて殺人魔集団たる現政権の即時退陣を要求する。

われわれの要求

1. 国家安全企画部と治安本部に不法連行されている民主人士を即刻釈放せよ！
1. 不法な強制連行・長期拘禁行為を即刻中止せよ！
1. 殺人的な拷問・容共ねつ造を即刻中止せよ！
1. 国家安全企画部長・張世東と治安本部長・姜玟昌を処罰せよ！
1. 拷問により死亡した朴鍾哲君を生き返らせろ！

2. 拷問および容共ねつ造阻止共同対策委員会〔1987年1月20日〕

現政権の野蛮な拷問殺人行為を 全国民の名において糾弾する

故朴鍾哲君の死を哀悼して

19日治安本部は、去る14日に治安本部対共分室でおこった朴鍾哲君の拷問致死事件について自らの捜査結果を公表し、朴君が2名の捜査官から水拷問を受けた際、首が圧迫され窒息死したと発表した。われわれはこの発表を聞いて、うら若いひとりの学生の生命を奪い去った拷問捜査の残酷な結果に、悲痛な思いを禁じえない。と同時に、現政権の野蛮さと暴力性にあらためて憤怒を感じずにはいられない。

ソウル市内のまん中で、しかも全国民の公僕たるべき警察によって、このような恐るべき殺人行為がほしいままに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われわれは、あらためて慄然（りつぜん）とせざるをえない。

85年9月の金權泰拷問事件以後も、南宮洞治安本部対共分室で公然と拷問捜査が行われていることは、警察側のたび重なる否定にもかかわらず、隠しおすことのできない事実となった。したがって今回の朴君の死は、このような拷問捜査がどのような結果を招来するかを白日のもとに示した事件であったのである。ここにわれわれは、軍事独裁政権の暴圧統治によって無念にも犠牲となったひとりの愛国青年の死を哀悼しつつ、今回の事件に対するわれわれ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

1. 朴鍾哲君の死について徹底した真相糾明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19日の治安本部の発表にはまだ多くの疑惑が残っている。治安本部の発表した連行時間・場所と下宿の主人の陳述との食い違い、朴鍾哲君の死体に残されていたという数多くの傷、電気拷問を受けたという心証を与える何人かの証人などについて徹底した調査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死亡後32時間ものあいだこの事実を外部に対して徹底的に隠蔽し、拷問の事実の決定的な証拠となる朴君の死体を急いで火葬した点、当初検察によって着手されたこの事件に関する捜査が、納得しうる理由もなく警察みずからの調査にまかされたという事実などに照らしてみると、この事件をできるだけ隠ぺいしようとした当局の意図をはっきりと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ふたたびこのような不幸な事態が発生し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も、この事件の真相を徹底的に究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われわれは信ずる。

あわせて、禹鍾元・金性洙・申浩秀ら、民主化運動の過程で失せし、疑問の変死体で発見された事件についても、この機会に徹底的に糾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この事件の責任者を糾明し、徹底的に厳しく処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朴君の死は、民青連議長金權泰氏に対する過酷な拷問以後、ソ労働事件関係者に対

する拷問、富川署での権さんに対する性拷問など、治安本部・安全企画部・保安司令部および各級の一線警察機関で数限りなく行われている拷問事例のうちの一つに過ぎない。われわれは、このような、日常的に行われている拷問を徹底して根絶するためには、担当捜査官2名以外にも、指揮責任者として治安本部長、内務部長官もまたこの事件の責任をとり即刻罷免されるべきであると信ずる。

3. われわれは、今回の事件が根本的には、二千余名の光州市民を虐殺して成立した全斗煥軍事独裁政権の暴力性に起因すると考える。自らの政権維持のためには、政権に反対する者の生命までもたやすく蹂躪してしまうことのできる現政権であればこそ、その末端機関での拷問殺人行為がたえまなく恣行されえたのである。われわれは、暴力によって成立し、暴力なしには一日たりとも支えることのできない現政権が、いまこそこの間の過誤を国民の前にひれふして謝罪し、大統領みずからが政権担当者として総責任を取ることを強く要求する。

4. われわれは、今回朴鍾哲君が、被疑者としてではなく手配者の所在を知るための参考人として捜査される過程で拷問をうけ生命まで奪われたという事実、すべての善良な市民が第二の朴鍾哲になりうるという危機意識をもたざるをえない。われわれの息子・娘、われわれの妻・夫が、いつどこで姿を消し、冷たい死体となってわれわれのもとに戻ってくるやもしれない社会に生きているのである。ゆえに、今回の朴鍾哲君事件を契機として、憲法上に厳然と規定されている身体・良心の自由など基本的人権を爭取し、あの全斗煥拷問政権の終息のために全国民の積極的かつ団結した努力を訴えるものである。

5. 現在、安全部など特殊捜査機関に不法連行・長期拘禁（金成植氏の場合は50日以上）されて拷問捜査を受けていると思われる数十名の民主人士について、その名簿と所在を公表し、即刻釈放するよう求める。

6. われわれはまず、きょう（20日）から26日までの一週間を全国的に朴鍾哲君追慕期間とし、国民すべてが黒いリボンを着用するよう訴える。そして、この期間中は、各団体ごとに現政権の殺人行為を糾弾し、故朴鍾哲君の冥福を祈る各種の集会などを活発に展開していくよう望むものである。

朴鍾哲君の無念の死の前に、故人の冥福を祈り、この地から拷問と暴力が追放され、真の民主主義が根をはることのできるその日まで、われらみな全力を尽くして総邁進（まいしん）しよう。

顧問：金在俊・咸錫憲・尹攀熊・洪南淳・李敏雨・文益煥・池学淳・金大中・金泳三
共同代表：略

死によってこの国に貢献した 弟を忘れないで下さるよう……

朴君の姉が寄せてきた「悲しみ」の手記

最近の混乱した世の中に、あれほど誠実でしっかりと純粋に生きている人はたして何人いるでしょう。

誰に対しても正しいことは正しいと、間違ったことは間違っているといえる人間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力をこめて言っていた子でした。

あの子の生活信条は「天を仰いで一点の恥らなく生きよう」でした。

そうして生きてきたあの子に、この社会がどのように映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

また、自分の恵まれた生活にくらべて、孤独で苦しい生活をしている部類の人びとを黙って見ていることができないと走り回っていた子でした。

そしてまた、この国の正しい明日の日のためにどのような犠牲でもはらうとこぶしをぐっと握りしめる子でした。

結局、死によってこの地に大きな貢献をして旅だったこの国の誇らしい一人の

青年を国民の皆さんが忘れてくださらないことを願っています。

死んでしまったからとてつもなく大きな人物になってしま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ほんとうに「できた人」だった彼の無念な死にたいして天がお怒りになったのです。

彼を知る人でそのことを否定する人がいるのでしょうか。

よく知らない人たちは運命だと思えといいますが、どうしてそんな単純な言葉一つであの子の死を葬ってしまう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か。

道を歩いていて遊んでいる子供がいたら、そのまま通り過ぎないで、ちょっとだけでもいっしょに跳ねて遊んでいた私の可愛い末の弟を忘れよというのですか。

곡인 여러분 감사 합니다

朴恩淑

【東亜日報1月24日】

V. 関連日誌〔1月13日～1月28日〕

1月13日～14日未明 朴鍾哲君、治安本部に連行さる。

1月14日午前11時20分 朴鍾哲君、拷問により死亡。

1月15日 ソウルの各夕刊紙「東亜日報」などが朴鍾哲君の死亡を報道。

1月16日 ▽新民主党調査団（5人）を構成。
▽民家協会員ら40名が治安本部前でろう城、16名が連行。

▽基督学生会30名が徹夜祈禱。
▽基督教教会協議会（KNCC）

声明を発表「拷問により死亡したと推定される」

▽「労働者後援会」事件関連家

族声明「調査を受けているわれわれの息子・娘・兄弟にも死の脅威」

◇米国務省が関心を表明「人権侵害であり、憂慮する」

▽ソウル大言語学科事務室に焼香所。

1月17日 ▽民推協声明「朴鍾哲君の死は現政権の暴力性に由来」

▽民憲協声明「発表に対する疑惑」

▽政治犯同志会声明「徹底真相究明を」

▽新民主党中間報告・声明

- ▼ソウル地検「過酷行為があった」
▽ソウル大に大字報
- 1月19日 ▼治安本部「水拷問で窒息死」と発表。
▼趙・姜の2名を検察に送致。
▽社民党50名ろう城。
▽新民党、特委を構成。
▽民推協、ろう城・声明。
▼金内省、謝罪「不幸な事故が起こった」
▽曹溪寺で朴君の四十九日を行う(大韓仏教曹溪宗)と発表。
▽金寿煥枢機卿「遺族の苦痛に同参、義憤を感じねば」
▼治安本部、調査結果発表。
▽成錫憲翁ら声明「人間的道徳的良心を失ったもの」
▽西江大・梨花大に大字報「死亡原因をわれわれの手で究明しよう」
▽高麗大で200人のデモ「誰がわれわれの友人・朴鍾哲を殺したのか」
▽大韓弁協声明「明確な組織的犯行」
▽延世大大字報
▽韓国基督教青年会に焼香所。
- 1月20日 ▼金内相更迭、治安本部長解任。
▽ソウル大で追悼式(追慕祭)
「君が灯したたいまつを掲げ」
▽拷問容共阻止対策委員会の声明
▽釜山・舍利庵で朴鍾哲君の初七日。
▽曹溪寺法会で「故朴君追慕・拷問糾弾」法会
▽新民党2次調査発表
◇米務省「悲劇的な拷問事件再発防止努力を歓迎」と論評
▽不法拘禁者家族・民家協ら声明
▽延世大1m×7mのカラー追慕幕
▽西江大100名デモ
▽成均館大50名デモ
- 1月21日 ▼カトリック平信徒協声明。「25日に特別ミサ」
- ▼全大統領、拷問防止特別機構常設を指示
▽延世大200名デモ
▽東国大400名デモ
▽漢陽大200名デモ
▽檀国大100名デモ
▽新民党、懸垂幕
▽イエス教長老会声明
▽自由実践文人協議会声明
▽ソウル大焼香所に70名
▽ソウル仏教青年会「故朴鍾哲法友追慕・拷問致死糾弾法会」
- 1月22日 ▼基督女性団体街頭ろう城
▽女性団体連合100名デモ「我らの息子鍾哲を生き返らせる」
▽民主憲政研究会48時間ろう城突入
▽民主言論運動協議会声明「殺人暴力拷問即刻中止せよ」
- 1月23日 ▼二人の拷問警官起訴
▽14大学900名朴君追悼デモ「殺人拷問を行った治安本部を解体せよ」
▽基督教教会協議会声明「現政権により必然的に招来された事件」
▼治安本部、「全世界の拷問」冊子を回収指示
- 1月24日 ▼検察、捜査結果を発表「電気拷問はなかった」
▽正義具現司祭団声明
▽在野人士24名、「朴君国民追悼会準備委員会」発足
▽梨花女大150名デモ
- 1月25日 ▼李新治安本部長、朴君宅を吊問
- 1月26日 ▼第132臨時国会開会
▽両金氏会合
▽明洞で3000名沈黙デモ
▽ソウル大デモ
▼金大中氏ら家宅軟禁
- 1月27日 ▼大韓弁協「公聴会」を開く
▽故朴鍾哲君国民追悼会準備委員会声明「朴君国民追悼会2月7日に」
- 1月28日 ▼新民党議員80人、人権特別委員会めぐり国会で徹夜ろう城



회장 윤 반 응 목사

회장인사말씀

이미 不踰矩의 나이로 이 어려운 時期에 韓國政治犯同志會의 重責을 맡게 됨에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항일시기로부터 이땅의 民主化鬪爭이 줄기차게 展開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옥살이를 겪으면서 오늘의 現實을 뼈저리게 체험한 本人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달란트)요, 歷史的 召命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땅의 군사독재의 종식과 조국의 平和統一을 爲하여 韓國政治犯同志會와 함께 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새로운 決意는 비단 나 혼자만의 決意가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의 질곡속에 있는 이땅의 모든 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이요 決意일 것입니다. 암흑과 절망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이땅의 自由와 解放의 여명이 동트던 무렵 또다시 새로운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세의 강요된 민족상잔은 2백만 동족의 살상과 2십만의 미망인, 10만의 고아를 낳고 국토는 초토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우리 민족은 그 짙은 장막속에서 大地는 빛을 잃고 萬物은 生氣를 잃어 이땅의 사람들은 民族分斷의 아픔과 체제대결의 民族的 손실만이 가중되는 온갖 재난과 박해속에서 영일없는 나날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국제독점자본과 패권자본이 유착된 국제착취경제구조의 먹이 사슬에 依해서 극소수의 外勢에 빌붙은 治富集團과 그와 결탁한 군사독재통치집단은 신식민지 장막속에서 民主主義를 팔아 온갖 부정부패와 착취, 그리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여 오는 정치적폭력, 경제적빈곤, 사회적타락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民族의 自由와 自存을 지키고 民衆의 自由와 生存을 回復시키려는 수많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언론인, 民主人士들이 罪없이 오랏줄에 묶여 갇은 고문과 탄압속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 분신·투신하는 자살아닌 타살되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독재자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순진한 女大生의 순결이 짓밟히는가 하면 말로는 표현못할 성고문을 당하는 이 서글픈 政治現實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혹한 고문으로 처절하게 죽어가야만 했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군의 죽음. 과연 이 나라의 政府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爲한 政權이란 말입니까? 오늘 民衆은 實로 창살없는 거대한 감옥속에서 서로가 감시당하는 정보탄압 정치로 길들여져 주권없는 "갈아요" 세태를 양산하게 되었고 社會的 공감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개인영리주의, 배타주의, 한탕주의, 황금만능주의 등 말세적인 풍토가 만연하여 진정한 민중의 여명이 외면된 채 독재자의 탄압과 착취의 속죄양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분노앞에 풍전동화 같은 자기들의 정권을 연명기 위해 민통련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민주화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분회 2대 회장이시며 현 민통련 의장인 문익환목사를 비롯한 3,000여명의 애국인사들을 투옥 고문하고 시녀재판을 통하여 이땅의 민주양심을 뿌리채 뽑아 보려는 속셈으로 갇은 음모를 다 꾸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민앞에 개헌이니 헌특이니 공청회니 하는 그럴듯한 가면극을 벌리면서 야당을 끌어들이며 무조건 석방되어야 할 양심수들을 더러운 사기 정치홍정에 이용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의 탄압이 있는 곳에는 역사의 심판이 있는 법, 총칼 휘두르는 자가 총칼로 망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일어난 현정권은 이제 더 이상 자주를 용공으로, 독재를 민주로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민을, 연대화 되어가는 거대한 민족양심으로 결집된 이 민중의 용어리가 결코 이러한 반민주적 집단을 무한정 용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7,000여 한국정치범동지들이여! 오늘 이땅의 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요, 새역사의 진운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류사의 물결입니다. 우리는 이땅에 민족양심의 보루로서 동지들이 걸어가는 앞날에 그 어떠한 형극이 걸어가도록는 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형극의 길에 다같이 동참하여 끊임없는 여러분의 성원과 뜨거운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동지들의 건승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1987년 2월 6일

創刊에 즈음하여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바로 양심이며, 이 양심은 진리와 정의가 그 기준입니다. 나의 양심은 너와 나의 양심으로, 너와 나의 양심은 영원한 민족의 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양심이 사회적 양심을 이루고 사회적 양심은 정치적 양심의 근저를 이루면서 도도히 민족사를 관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센 정치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깨끗하고 분명한 양심의 물결을 보아왔습니다. 60년 4.19의거, 64~65년 6.3 사태를 비롯한 한·일 굴욕 외교

반대투쟁, 3선개헌을 포함한 유신독재체제 반대투쟁, 그리고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등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숭한 양심적 저항과 투쟁의 과도를 넘어온 우리는 바로 민족적 양심이 발현되는 민족·민주 발전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비판하는 양심과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진리, 불의와의 끝없는 투쟁이 역사발전의 과정이요, 내용이라 할 때, 바로 우리 정치범 동지회 회원들은 비판하는 양심으로서 비진리와 불의에 항거하다 억압받고, 탄압받아 수감된 정치범·양심수로서 정의의식발 수난을 당해 왔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헤매이던 지난 고통의 세월은 본인은 물론 가족·친지·동지들과도 피눈물나는 긴 사연을 간직하고 있기에 가슴 한 구석 공허와 쓰라린 마음도 있지만, 오직 남은 것은 우리의 양심뿐이요, 이 양심은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재산이며, 민족사의 등불인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외쳐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양심의 소리는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입니다. 이 민주화는 이 시대의 지상과제이며 또한 세계의 물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는 이 사회의 실상과 허상의 뒤바뀜입니다. 도시의 높아져만가는 빌딩들, 그 사이로 넘쳐 흐르는 자동차의 홍수, 흥청거리는 유흥업소, 향락산업, 복부인들의 경제천하, '86·'88의 목권 소리, 프로야구,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을 누리야하는 흥청망청, 한탕주의, 그리고 큰 정치, 이런 것들은 이 사회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사실상의 실상은 고도성장 운운하는 경제발전 뒤에 숨어있는 500억 달러의 외채, 노동자·농민·도시빈민·서민들의 생활고, 양심적 저항과 데모, 최루탄, 정치범의 급증, 급기야는 분신자살 등등의 아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허상과 다중의 실상, 이것은 신식민지 후진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이중구조적 모순의 양면성의 노출입니다. 위정자들은 계속 허상으로 실상을 은폐 왜곡시키려 하지만, 이 민족사의 수레바퀴는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양심적 역사의 방향에 동참하지 않을 때, 아니 거역하려할 때 그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소모사, 팔레비, 고딘디엠, 뒤발리에, 마르코스, 이들은 바로 인간의 비판적 양심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하며, 물리력에 의한 탄압으로 역사의 방향을 막아보려다 결국은 성숙한 도덕적 양심 앞에 참패한 역사의 산 교훈들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조건, 사회적 생활 환경을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 있음에 그 가치와 보람을 있거늘, '먹고'는 살되 '생각'은 하지 말라'는 예측적 생활양식이 강요된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양심적 저항과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노동자가 자기의 정당한 생존권을 주장하다가 급기야는 분신 자살하는가 하면, 강제농정에 시달리다 빛더미에 올라 앉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며 호소한 농민, 재개발의 명목아래 삶의 근거조차 빼앗긴 도시빈민, 영세 상인들, 수많은 애국학생들의 인신의 안정보다는 역사와 민족 앞에 고난을 불사하고 감옥의 길을 택하는 현실, 이런 현실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까?

지난 1월 14일 이 민족의 어린 짝인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고문 당하다가 몸에 만신창이의 핏자욱을 남긴채 또 하나의 고귀한 목숨이 독재의 하수인들에 의하여 억울한 생죽음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애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 못해 실신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이 처참한 현실은 바로 우리민족 우리사회의 아픔입니다. 오늘도 수천명의 양심수들이 옥고를 치루고 있고 감옥의 안과 밖에서 날이 갈수록 민주화의 함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함성은 바로 민족의 함성이요, 진리의 함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극우와 극좌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독재의 희생물이 되어 왔고, 양심운동의 전개에 따른 고난을 치뤄왔지만, 다시금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사회적·민족적 양심으로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비양심적이고 게으른 농장주가 번갈아 경작하는 동안 5천년 역사의 기름진 옥토가 박토로 변하고가는 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농장주를, 정직하고 양심적인 농장주로 같이 "時和年豊, 雨順風調" 하는 민주적양자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를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을 것이며, 새롭게 가다듬은 자세와 보다 굳건한 결속과 연대로 민주정쟁의 출사표를 낼 것입니다. 동지들이여!

세계의 진운은, 이 민족사의 향방은 분명 민주화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독재와 탄압, 고문과 용공조작, 무차별한 구금 등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의 눈물은 씻겨져야 하며, 현재 옥고를 치루고 있는 양심수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그 어느날 다시금 은팔찌를 끼고 오랏줄에 묶인다해도 동상걸린 발을 부여안고 언 보리밭 덩어리를 나누어먹던 동지애를 상기하며, 한국정치범 동지회의 한우리에 굳게 뭉쳐 못다 외친 민주합성을 목청껏 외쳐 봅시다.

이 봄도 예외없이 민주화의 목소리, 양심의 소리가 더욱 높아질지니 살아남은 자 죽음에 임하는 그 날,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정치범동지회

상임운영회의 의장

김 금 동

본회약사

본회간사장 이경식

한국정치범동지회가 발족한 것은 유신의 독아가 번득거리던 1979년 7월 25일이었다.

한 인간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추악한 본보기요, 한 집단에 의해 자행된 민족사적 범죄인 유신체제는 그 조작을 위한 계엄이 해제되자 뜻있는 인사와 국민들의 전면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저들은 예정된 일정대로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온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였지만 민주회복을 위한 부단한 항쟁은 감옥문을 깨워지게 하였다.

그러나 서슬이 퍼런 긴급조치와 정보정치의 독아는 감옥의 안과 밖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여 옥고를 치루고 나온 우리 동지들에게는 영일이 없는 처지였다. 여기에 민주화 투쟁의 운동단체로서 조직과 응집력을 갖춘 모임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79년 7월 25일 종로구 관철동 소재 종각식당 2층에서 김윤식, 계훈제, 김금동, 이경식, 박광태, 권혁충 등 제 동지들이 모여 발기 출범한 것이 우리 동지회이다.

그러하여 처음 부딪힌 것이 8월 10일부터 시작된 Y·H농성의 폭력 해산에 대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항의 농성의 지원 운동이었다.

이 당시 신민당은 김총재를 제외하고는 체제에 안주하려는 기회주의 풍조가 팽만하던 시절이어서 항의 농성이 시작되자 사흘도 못가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동지회에서 통일당을 합류시키고 재야단체인 민주회복기독교 회와 구속자 가족협회, 민주회복 교수협의회 등을 안내하여 고군분투하는 김영삼 총재를 위문, 방문하는 형식으로 농성장의 분위기를 고양시켜 정당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17일간의 장기 농성으로 부마의거와 10·26 의거로 연결시켰다.

그러나 독재자의 죽음이 곧 민주화는 아니었다. 유신의 잔당들은 그들의 잔명 보존을 위하여 궁정동의 총성으로 이미 휴지족이 되어버린 유신헌법을 가지고 후계자 선출을 하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극을 연출하였다.

79년 11월 20일에는 인국동에서 민주회복 기독교회와 더불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시국선언대회를 하게 되어 현 회장이자 초대회장이신 윤반웅 목사님 포고령 위반으로 영어의 몸이 되셨고 김금동, 장재철, 박광태, 권혁충, 김기선, 최형호 등 제 동지들이 치재에 회부되었다.

동년 12월 11일 청진동에 있는 운정에서 부회장인 계훈제선생과 김승훈 신부님의 주재아래 문익환목사님과 장기표, 김봉우동지 등 출옥동지들의 환영연을 베풀고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공석중인 회장에 문익환목사님을 추대하였고 80년 4월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초원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 준비를 하다가 결국 5·17을 맞았다.

5·17계엄화대와 함께 모든 재야 운동단체가 풍지박산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동지회는 5월 20일 국민연합명의로 저들의 잔인한 광주 사태의 만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어 교토 통신과 아사히 신문을 통하여 전세계에 우리 민주화 운동권의 의지를 최초로 표시했고, 5월 23일 "민족양심에 호소한다"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단성사에서 시작하여 아세아극장, 연흥극장, 허리우드극장 앞까지 저항시위를 주도하다가 6월 16일 김금동, 장재철, 이우성, 이경식, 손창식 등 제동지가 체포되어 이경식 2년 2개월, 손창식 1년 2개월의 징역과 김금동, 장재철, 이우성은 집행유예로 우리의 저항은 끝나게 되었다.

이후 85년 4월 1일 다시 모인 동지들이 초대 회장이신 윤반웅목사님을 모시고 소위 미스 유니버스 폭과 미수사건의 권오창

등어려움속에서 저항한 분들과 힘을 합하여 우리 동지회를 재건하여 예춘호위원의 독지로 인사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가 철수하였고, 다시 야권 지도자들의 독지와 협찬으로 관철동에 소재한 대신빌딩에 새로이 사무실과 집기일체를 마련하여 개소식을 한 것이 지난 4월 18일이다.

그동안 광주살사로 용어리진 민중은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투쟁대열이 날로 늘어나 80년대 중반에 와서는 더욱 조직화·연대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화의 발전에 부응하여 투쟁대열을 다시 정비하고 그 중심점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효과적인 민주화투쟁을 위하여 재야 민주화 단체들의 성원하에 본회 부설 인권문제연구소를 개설하여 많은 양심수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펴는 한편 다른 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3,500여명의 양심수가 구속되는 것을 비롯하여 성고문사건, 분신투신자살사건, 교도소폭행사건, 과격용공조작사건, 납치감금, 불법연행사건, 특히 금년초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온갖 해야될 수 없는 군사독재의 비인도적인 말기적 현상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총칼로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정의와 양심은 죽일 수 없다. 그러기에 군부독재가 제아무리 서슬이 퍼런 총칼을 가지고 미친듯이 날뛰다손 치더라도 민주화의 대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확대되고 저들의 국민적 기반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

총칼은 권력잡은자 총칼로 망하지 않은 예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역사의 진리를 믿고 그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민중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인권문제로 얼룩진 한해를 회고하며

한 인간이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는 누구나 가져야하는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천부적인 인권인 것이다.

인권의 내용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침해하지 못할 불가양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인간다운 삶이란 단순한 물질적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극적으로는 그 기본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삶이며 적극적으로는 그 기본인권의 내용을 풍성하게 가꾸어나가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려는 민주화운동도 그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억압된 인권을 회복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민주화운동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진리의 실천이요, 정의로운 투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역겨웠던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자. 그 귀중하고 고귀한 우리의 인권들이 물리력에 의해서 무참히도 짓밟힌 얼룩진 한해가 아니었던가? 소위 공안사범이 무려 3,000여명으로 늘어나서 하루평균 십명 이상이 구속된 셈이며 85년의 970명에 비하면 3.2배나 되고 84년의 47명에 비하면 무려 62.1배나 된다. 그중에서 서울대생만 해도 981명 입건에 423명이 구속되고 근로자가 250여명이나 구속되는 가공할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질적인 차원에서 부친경찰서에서 자행된 권양의 성고문 사건은 이땅의 민족적모성이 깃밟힌 천인공노할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젊은 이들의 자기양심을 호소할 길이 없어 분신투신 자살하는 숫자가 헤아리기 어려웠다.

인권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감행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열렸던 전국교도소장협의회를 통해 「소내 기강을 확립하라」는 엄명이 떨어진 이래 전국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더욱 가혹한 물리적인 억압과 폭행, 그리고 징벌이 가해져 왔다.

또한 이른바 재야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법적 근거조차 찾기 어려운 해산명령과 압수수색영장을 남용하여 민통련을 강제해산 조치시켰고 이 나라의 전통제일야당인 신민당의 개헌집회가 경찰의 힘으로 무산된 것은 집회자유와 근원적인 봉쇄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애절한 근로자들의 호소가 국헌문란이 되는 국가보안법에 묶이어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의 정의로운 현실분석이 용공좌경으로 몰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교육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지성이 비민주교사로 지탄받아 교단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제도언론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고 유언비어라는 사생아가 민중의 뉴스 역할을 해내야 했다.

이러한 현정권의 인권탄압행위가 날이 갈수록 가혹해져서 급기야 금년초에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군의 물고문치사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꽃다운 나이에 전신에 핏자국을 남기고 생죽음을 당한 본인의 원한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 어려운 가정에서 자식 하나 희망을 가지고 가르치며 키워온 부모님의 아픈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까. 이 사회 온국민이 분노하고 통곡해도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릴 길이 없다. 인간이 발견한 그 어떠한 말과 글로서도 이 슬픔, 이 아픔을 적절히 표현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은 전국민 전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하고 고문한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관계관, 그리고 「현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만의 일이라도 이 사건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의 지탄과 여론은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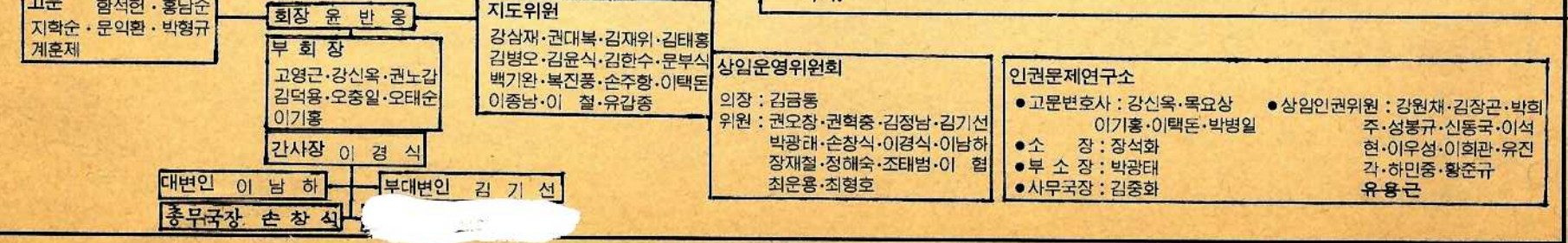
현정권이 진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인권탄압을 집권수단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을 더욱 거센 반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이러한 민주화의 열기는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조류이며 역사적인 운동이다.

특히 지난해는 환태평양의 자유의 바람이 그 어느때 보다도 거센 한해였다. 이제 위대한 환태평양의 민주화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를 축출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거쳐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국민들은 독재의 장기집권과 인권탄압에 대한 해방을 염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묘년의 또 한해를 바라보는 심정은 실로 착잡하기만 하다. 인권탄압이 없어지는 한해가 되어 다시는 박종철군과 같은 처절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한국정치범동지회는 인권운동단체로서 그동안 회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며 싸워 왔다. 특히 국민들의 성원하에 본회 부설 인권문제연구소를 개설하고 소장님이신 장석화 변호사님의 지도아래 그동안 많은 양심수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벌려 성의있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많은 내외적 여건이 우리들의 활동을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오늘 인권운동의 현실이 탄압건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쉬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해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더욱 보람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권운동이 비록 일천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철학과 독자성을 가지고 꾸준히 전개해 나갈 때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7천여 동지들은 회장님이신 윤반웅목사님의 지도하에 굳게 단결하여 재야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때 민주화의 성업을 이룩하고 나아가 조국통일의 염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본회 구성표





辯護士 張石和

本會 附設 人權問題研究所 開所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

지금 이 시대는 마야흐로 人間回復을 위한 人權運動의 물결이 汎世界的으로 밀려오고 있다.

필리핀에서, 파키스탄에서, 칠레에서, 남아연방에서, 대만에서, 세계 곳곳에서 人權運動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國內에서도 周知하는 바와 같이 改憲政局 등으로 人權問題가 深刻하게 論議되고 있는 차제에 本會에서 人權問題研究所를 開設한 것은 이 시대 國民의 要求에 附應하는 것으로 참으로 意義가 깊다 하겠다.

昨今の 國內外 人權運動의 動向으로 보아 人間의 天賦人權을 權力으로 抑壓하려는 獨裁者들의 企圖는 褪色하여가고, 人間의 基本權인 身體의 自由,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 良心의 自由 등을 비롯한 自由權과 勤勞者의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等 勞動三權과 같은 生活權, 그리고 명실상부한 參政權의 保障을 이룩하려는 國民들의 熱火같은 목소리가 더욱 뜨겁게 높아가고 있다.

차제에 本會에서는 이와 같은 國內外 人權問題에 關한 諸般問題들을 調査研究하여 人權回復運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立되었고,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人權問題에 關한 調査研

究活動을 強化하고 그 結果를 刊行物 등으로 國民들에게 널리 알리어 本會研究所가 人間回復運動의 尖兵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고자 한다.

本會研究所의 具體的인 事業은 本會研究所의 陣容이 갖추어지는대로 任員들과 充分히 相議하여 計劃案을 提示할 것이다.

우리 研究所가 나아가야 할 길은 明白하다.

지금도 2000여명이 넘는다는 良心囚들이 獄苦를 치루고 있는 것이 現實인진대 “良心囚” 또는 “政治犯”이 이 땅에서 永遠히 根絶되어 그 用語自体가 사라지도록 本會研究所는 모든 努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기에 重且大한 責任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힘차게 일할 때가 온 것이다.

民主와 人權이 回復되고 保障되는 時代가 멀지 않았다고 自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땅에 民主人權의 꽃이 활짝 피어 人間回復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本會研究所는 盡力을 다하여 맡은 바 所任을 다할 것이다.

同會研究所의 存在意義가 없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研究하고 鬭爭할 것이다.

본회부설 인권문제연구소 수임사건별 현황

성명	구속일자	직업	사건명	교도소
1 김 정 남	5. 27	본회상임운영위원	범인은닉	서울구치소
2 박 계 현	5. 17	청계피복 부위원장	집시	의정부교도소
3 황 단 호	5. 17	청계피복 위원장	집시	성동구치소
4 최 용 석	3. 22	선창목재 (서울치대2년)	집시·폭행	인천소년교도소
5 이 재 영	5. 15	인천대3년(총학생회장)	소요죄, 집시	인천소년교도소
6 이 현 필	5. 5	성균관대 졸	소요죄, 집시	"
7 권 오 강	5. 5	"	"	"
8 주 성 종	5. 5	명지대 4년	"	"
9 김 동 범	5. 5	성대4년 제적	"	"
10 손 영 임	5. 5	노동자(전문대졸)	"	"
11 이 현 경	5. 5	아남전기 해고근로자	"	"
12 김 창 식	5. 5	서울농대 2년	집시	"
13 이 승 민	5. 5	서울의대 1년 휴학	집시	"
14 한 휘 석	5. 5	서울대 2년	집시·소요	"
15 이 상 명	5. 20	인하대 4년	"	"
16 이 용 주	5. 25경	인하대 3년 제적	"	"
17 김 수 영	5. 10경	연세대 4년	"	"
18 김 윤 기	5. 5	국민대 4년	"	"
19 황 언 구	5. 5	연대 요업과졸	"	"
20 강 경 문	5. 5	서울대 4년	"	"
21 박 중 문	5. 5	인하대 4년	"	"
22 박 병 무	5. 5	서울대 건축과 졸	"	"
23 민 춘 기	5. 5	인하대 2년	"	"
24 방 은 호	5. 5	성대철학과 3년	"	"
25 유 원 모	5. 5	성대앞 서점	"	"
26 박 용 수	10. 10	민통련 보도실장	"	"
27 최 형 호	10. 10	정치법동지회 인권국장	"	"
28 김 광 수	10. 10	민통련 서울지부	"	"
29 기 광 서	85. 12. 14경	연대 사회사업과 4년	"	영동포교도소
30 강 희 남	"	목사	집시. (추가)보안법	"
31 김 선 증	86. 9	인천위장취업	"	인천교도소
32 한 현 구	86. 4	" (학생)	"	"
33 홍 장 기	"	서울대(위장취업)	"	영동포교도소

회원 가입 안내

자격 : 5·16 군사독재이후 정치적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한 민주인사
요령 : 입회원서(본회소정양식)를 작성하여 본회 총무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정치법 없는 사회를 위하여 인권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발전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祝詩

큰 기쁨 하나로

양 성우

아직은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피묻은 주먹 아래 칼날 아래 모조리 감히고

온몸에 붉은 밧줄 끝도 없이 조여와도

아직은 우리 이 어둠 속에 이슬이 되어

날날이 스며든 것이 아니라네.

여기저기 밤의 나라, 죽음의 집, 가득히 쌓인 신음들

안으로 누르며 우리 곳곳이 버티고

다시 살아 불이 되어 소리치며 타니,

남이야 살건 죽건 제 입만 아는 뻔뻔스런 사람들!

그 얼마나 성가시고 두려울까?

비바람 속에 서리 위에

이 길이 비록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우리 오직 몸을 던져 저 아침을 앞당기는 큰 기쁨

하나로 서둘러 가고,

그리고 날마다 웃으며 죽지만

아직은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우리

이유없이 따돌림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저 거짓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수천 수만의 날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왜냐하면 우리 오늘 하루의 싸움끝에 결코

지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퍼렇게 살아서 여기 있기 때문에,

살아서 숲이 되어 한순간에 일어서기 때문에

천만에, 죽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네.

우리가 아니라네.

열망이여

여기저기 죽음의 집 가득히 쌓인 피눈물

안으로 누르며 낮으로 버티고

다시 살아 우리 여기 모였으니,

아직은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아직은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우리 다 죽은 것이 아니라네.

- 인권현장 -

박종철 열사 추모제 참여기

본회 상임운영위원

민주현장연구회 인권위원장 이 협

1987. 1. 20. 오후 1시 30분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사무실 벽에는 열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그 옆에는 문익환목사의 시가 걸려있다. 제상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간 열사의 넋을 기리는 친구들의 국화꽃 몇송이 제물이 놓여있다.

열사가 늘 드나들던 곳을 떠나는 마지막 광경이다. 30여 학우들은 영정을 모시고 정든 교내 곳곳을 돌고돌아 추모제가 거행될 학생회관 2층 라운지로 향하였다. 구속자가족 어머니들의 호느낌 속에 2시 정자 서울대생 1,500여명, 수배중인 총학생회 총무부장, 신교수등 언어학과 교수와 교직원, 재야인사 30여명과 민주화 실천가족협의회 회원 30여명도 참석하였다.

언어학과 여학생이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는 조시 낭독을 했을 때 학생들은 오열했고 고 김세진군의 어머니, 구속중인 박신철군의 어머니가 추모사를 차례로 낭독하자 학생들은 「살인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필자의 추모사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그후 천여명의 학생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 켈기대회를 갖고 살인고문정권 타도에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하면서 교문앞까지 침묵시위를 전개하여 하오 5시 30분경 해산했다.

교문밖에서는 추모제에 참가하려는 민가협 가족과 재야인사와 경찰사이 에 치열한 공방전이 1시부터 5시까지 계속되었고, 구속자 어머니 3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김근태씨 부인등 수명의 민가협 회원이 관악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학생 박종철 군에 대한 고문 살인과 교사 이순덕 씨에 대한 행정살인

김진경(민주교육실천협의회)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 치사사건은 온 국민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운운하는 현 정권이 기실은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에 대한 군사, 첩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에서 배포되는 충격이다. 아이들 대학 보내기가 두렵다는 학부모들의 호소는 바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현 정권의 군사, 첩보작전이 언제 자신의 귀여운 아들 딸들이 언제 참혹한 고문과 죽음의 구렁덩이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현 정권은 이번 사건이 우연한 불상사인듯이 호소하고, 분노에 치를 떠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고문 경찰관의 구속, 치안본부장과 내무부장관의 경질, 정부차원의 고문 근절을 위한 기구설치 등 기관적 수습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정권의 이러한 대응들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술수임을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그 원인이 단순히 수사경찰의 의욕과잉이나 일부 경찰관료의 비인간적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80년 5월 이래 나날이 커졌고, 이것을 바탕으로 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운동세력이 광범하게 형성된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확산에 위기를 느낀 의제와 현 정권은 보수야권을 체제내로 끌어들이어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흡수하고, 좌경, 용공조작을 통해 민주화 세력을 고립시켜 폭력적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렸다. 내각책임제란 바로 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토벌작전의 명칭에 불과하다. 이 대토벌작전의 명분은 용공 좌경이었고 용공, 좌경조작은 고문에 의해 가능했다. 현 정권이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고문으로 인한 무수한 스캔달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부가 권력에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고문은 사라질 수 없다.

박종철 군의 죽음은 의제와 현 정권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대토벌작전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이며,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상징이다. 고문의 본질이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이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있다면 사실상 우리 모두가 나날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 양심적인 교사 이순덕 씨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가해지는 고문이 한 인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이순덕 선생님은 1979년 6월 서산군 태안여중에 부임한 이래 서산여중을 거쳐 82년 예산여고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흥성 YMCA 교사회에 가입하여 올바른 교육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교위는 장학사 2명을 파견하여 단체에서 탈퇴할 것만 어떠한 출판물에도 교육에 대한 글을 신지 말것을 종용, 각서를 요구하였다. 선생님이 이를 거부하자 도교위는 보복조치로 1985년 3월 대전 체육고로 전보발령을 했다. 1986.1-2월 도교위 장학사가 다시 체육고를 방문하여 Y교사회 활동을 중지할 것을 종용 각서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를 거부하자 다시 보복조치로 1986년 3월 서천군 서면중으로 전보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이미 1985년 초부터 몸에 이상이 있음을 자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도교위와의 괴롭고 지루한 싸움과 빈번한 전근으로 본격적인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잃고 만다. 그러나 본격적인 행정고문은 서면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도교위 장학사 김수천은 빈번히 서면중을 왕래하며 교장 황준하를 사주하여 다음과 같은 류의 행정고문을 가하였다. 아무 이유없이 1년 동안 담임반을 5번 바꾸었다. 학생들과 '우리들 이야기', '작은 세상' 등의 명랑가요를 부르는 수업시간에 교장이 들어와 '앞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학생 앞에서 선생님에게 폭언, 담임반 학생들의 생일 자축연을 열고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였는데 교장이 학생들에게 너무 친절한 것은 다른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책을 수거함. 교장 교감 주임들의 감시. 한 교사가 군에 입대하여 젊은 교사들이 송별연을 해주었는데 교장이 직원회 석상에서 '누가 선동했는지 다 안다. 문제가 있다.' '형사가 다녀 갔다'고 협박하고 교장실에서 교사들에게 '이 조직이 사회주의 노선의 교원노조와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는가?' 등의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후에도 수시로 교사들을 불러 이선생님으로 인해 소위 의식화 오염된 사향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행정고문은 1986.6.14일 선생님이 '충청교육민주화선언'에 서명한 이후 더욱 가중되었다. '신분상의 해'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 담임반 학생들을 불러 선생님이 좌경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모함하고 선생님의 언행을 조사. 이러한 조사의 전교생 확대, 육성회장을 사주하여 선생님이 이 지역을 사회주의 혁명기지화 하려 한다. 증거는 없지만 처녀로서 행실이 불량하다는 등 터무니없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선생님이 북한을 찬양하고 노래를 가르친다고 소문을 퍼뜨림. 이것을 빌미로 교장은 선생님에게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와 대화를 금지하도록 요구, 교장이 간부학생들에게 강요하여 선생님의 집에 밤에 돌을 던지게 했고 선생님은 이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8월 도교위의 해임요구 사실은 선생님이 통보됨. 선생님은 충격

으로 쓰러져 충남대 병원에 입원, 선생님이 수술중인 9월 김수천은 선생님이 활동 불가능한 틈을 타 결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조치함. 2차 수술중 모기관으로부터 병원에 '이순덕은 문제교사로 해임되었으니 의료보험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압력을 가해 병원측으로부터 퇴원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법률상 해직이 되어도 수개월간 의료보험카드를 유한 것임. 1987.1.3일 병의 악화로 사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의 행정적 고문이 한 양심적 교사를 어떻게 죽음에까지 몰고 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소위 좌경의식화를 위해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 한 시골마을을 혁명기지화 하려 했다는 문제의 노래가사를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다리고자 했다.

선생님 선생님

이제 그만 꾸중하세요 네-

우리는 뭐든지 아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매일 보는 일들이지만 할 말이 많은 걸요.

떠들다고 지우개처럼 이제 그만 탁탁 터세요. 아야아야

우리들은 말팔랑이지만 마음만은 밝잖아요.

우리는 이 가사를 '좌경의식화니', '사회주의 혁명기지화'니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니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며 차라리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일도당도 않은 것들을 근거로 김수천, 황준하를 비롯한 교육관료, 아니 이 독재정권은 한 양심적 교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 고문에 의한 살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3,000만 학부모님들께 야만적 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학생과 양심적 교사,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는 결의를 다져줄 것을 호소한다.

자유, 민주주의 화신으로 부활케 하자

본회 대변인 이 남 하

아빠사,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했는가? 끝내 일을 내 고야 말았구나. 어쩔꼬,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무슨 말로도, 어떠한 필적으로도 치솟는 분노와 울분을 가눌 수가 없구나. 북받치는 증오로 하여 고 박종철 형제에 대한 애도의 정마저 빼앗기는가 싶다.

이 참극은 살인적 고문을 일찌기 겪은 우리들에게 옛일들을 상기시켜 주기에 전율마저 느껴지는 것이다. 헌법 제 11조 제 2항은 한낱 법전의 장식품인양 곳곳의 은밀한 고문장에서는 조직적이고도 잔인한 고문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음을 생각하니 그 비명과 가냘픈 신음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것만 같다.

그간 묻혀버린 의혹의 죽음은 그 얼마이며 사건직후부터 사실을 은폐 왜곡 호도하려 했던 친인공노할 만행과 인면수심의 가증스런 당국의 거듭되는 발표, 사건의 진상이 채 밝혀지기도 전 유력한 증거가 될 박군의 사체를 서둘러 화장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꾀하려는 듯한 처사는 무엇으로 변명하려는가. 이번 사건이 폭력군벌독재 정권의 타성화된 인권유린 작태가 빚어낸 병산의 일각일 뿐임을 누가 모르랴. 원과 한과 슬한 의혹만을 남기고 한줌 햇빛 가루가 되어 임진강 지류에 뿌려진 고 박종철 형제의 고훈이야 천만번 드리는 추모제로 위로될소냐, 4천만 민족의 통곡소리를 고훈을 잠들게 할까보나. 아직도 속죄는 커녕 "뜨거운 맛 좀 보겠느냐"며 사건취재 기자들을 옥박지르고, 뒤늦게 우리의 인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표현, 고 박종철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의 제마져 막는 현 정권 하수인들의 폭악스러운은 바로 그들의 잔학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의기가 군벌독재정권의 최루탄과 가공할 고문 앞에 힘 없이 보이나. 결코 우리의 민주화의 외침과 열망이 폭력군벌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리 고야 말 것을 믿는다. 이제 고 박종철 형제의 구친의 고훈과 더불어 이 땅의 민주화가 영글어가고 있음이 확실해지고 있음에 치미는 분통과 터지는 오열을 삼키며 마음을 가다듬고 박군의 죽음을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한알의 밀알임을 깨닫고 자유, 민주, 평화의 화신으로 부활케 하자. 이것이 바로 형극의 세상에 살아남은 우리의 할 바임을 믿는다.

인권유린을 일삼는 폭력군벌독재정권에게서 어찌 인권존중, 자유 평등 민주사회를 바랄 수 있으랴. "희랍군정의 종식만이 희랍사회의 고문을 종식시킬 수 있을 뿐"이란 국제 엠네스티 선언이 암시하듯 이 땅의 고문추방은 오직 군벌독재정권의 종식 뿐임을 우리는 믿는다.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새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적 과업을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직하게 끈기하자. 진실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값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엄숙한 진리를 일깨우며 이제까지의 모든 의혹스런 사건들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며 아쉬운 필을 놓는다.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 발족선언문

우리 불교도들은 고문으로 살해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을 고 박종철 범우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지난 2월 7일 온 국민의 추모 속에 거행된 고 박종철 범국민추도대회는 당국의 파렴치한 봉쇄에 부딪혀 불행하게도 그 추모의 념을 다할 수 없는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독재와 폭력을 증오하는 이 땅의 민주시민들의 관심은 앞으로 다가올 3월 3일의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3일은 불교도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는 49재가 고 박종철 범우를 추모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일 뿐 아니라, 인권보장을 통한 생명존중의 사회 구현, 나아가 나라의 민주화에 대해 우리 불교도들이 얼마만큼의 몫을 하느냐에 온 국민의 기대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49재 봉행준비위원회는 이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한 지난 2월 7일에 못다한 추모의 념을 다하기 위해서도 49재 봉행준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49재는 불교 전래의 의식으로서 영가와 이승에 사는 우리들과의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이 지나면 영가는 천도되고 말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49재야말로 죽은 이에 대해 산 사람들이 정을 표하는 마지막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 1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은 고 박종철 불자가 고문살해 당한 데 대해 “이 땅에서 이같은 인권유린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아울러 박종철 영가 49재를 이 나라 불교의 상징적 중심 사찰인 조계사에서 범종단적으로 봉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월 18일 박종철 영가 49재를 부산 사리암에서 치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서 행한 전국민과 불자들에게의 약속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 불교의 상징적 중심인 조계사, 바로 그 주인이어야 할 총무원이 떠나려 하는 것입니까.

물론 말하지 않더라도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철 영가 49재가 종교행사로써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로 치러질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비폭력을 사갈시하는 폭력정권은 조계종 총무원 및 여러 불교단체에 위협과 압력을 행하고 있으며, 총무원의 결의 번복 또한 그 결과이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원의 결의 번복은 결국 현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정권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뜻있는 승가·재가 불자들은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를 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3월 3일 11시(사시) 조계사에서 고 박종철 영가 49재를 봉행하게 됨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 준비위원회는 온 국민과 불교도의 인권회복과 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대위력과 대서원을 저버릴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이제라도 당국은 불교탄압을 중지하고 총무원은 결의 번복을 철회할 것을 성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는 고문없는 생명존중의 사회, 민주화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

- 1, 고박종철 영가 49재는 3월 3일 11시(사시) 조계사에서 봉행합니다.
- 2, 1987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를 고문추방 및 민주화를 위한 전불교도 기도주간으로 선포합니다.
- 3, 총무원은 49재를 조계사에서 치러야 하며 더 나아가 18개 종단협의회 이름으로 봉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4, 49재에 대한 현정권의 온갖 방해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실천합시다

- 1, 모든 불자들은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을 위해 3월 3일 오전 11시 조계사로 모입니다.
- 2, 전국의 모든 사찰과 암자는 3월 3일 오전 11시 일제히 49재를 봉행합니다.
- 3, 전국의 모든 사찰과 암자는 3월 3일 오전 11시 일제히 타종합시다.
- 4, 기도주간(2. 25 ~ 3. 3)에는 고문추방 및 민주화를 위한 각종 집회를 개최합니다.

1987년 2월 23일

고 박종철 영가 49재 봉행준비위원회

고문: 석주, 고산, 월운, 법정, 용태영, 고은

(연락전화번호: 735 - 8971)

공동대표: 청화, 지선, 휴암, 명진, 성문, 진관, 도현, 여익구, 김동현, 고광진, 조성렬

우리들의 아들 박종철 고문의 죽음을 애도한다.

대한의 아들, 종철아!

내가 그 모습으로 죽다니!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이 어머니들의 간장을 끊어놓고 떠나다니!

너를 죽인 자가 누구냐? 내 조국이 아니냐?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졌단 말이더냐!

친구 이름 불지 않은 것이 그렇게도 죽을 죄란 말이더냐!

민주사회, 정의사회, 평화사회 만들자는 너의 합성이 죄과였더냐! 내 아들아!

서울시민이 활보하는 대낮에, 너는 서울 한복판 대공수사단 고문실에서 피터지게 얻어맞으며, 배터지게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며……그래 친구의 생명이 더 중요해, 나라의 민주화가 더 귀중해, 끝내 하늘같은 네 생명을 그 악마들에게 주어버린 너는 정말 못한 놈이었다. 어머니들의 애(腸)를 꿇고간 불효자식이다.

아니다! 우리 대신 네가 죽었구나!

지지리도 못한 이 나라가 하늘같은 생명을, 젊은 목숨을 죽였구나!

고문과 폭력으로 버터가는 악마같은 전두환 정권이 우리들의 아들, 딸들을 하나씩 들씩 죽이고 있다.

최루탄과 채포와 곤봉의 세례속에서 버티며 커운 너는, 끝내 폭력고문으로 꽃같은 인생을 악마들의 손에 의해 마쳐버리다니…… 아! 종철아!

민중의 지팡이가 곤봉이 되어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아비(경찰-정권)가 아들(종철-민중)의 목을 조르는 사회, 그래서 늙은이가 젊은이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회는 이제 다 끝장난 사회다.

이땅의 민주-정의-평화는 너의 죽음과 함께 한 줌의 잿덩어리로 화(化)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대학가에서, 고문실에서 피 토하며 죽어가는 사회를 이제는 이 어머니들이 맞서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피맺힌 한(恨)을 풀어줄 것이다.

어머니들은 통곡한다! 어머니들은 분노한다! 어머니들은 호소한다!

1. 종철이를 살려내라! 우리 아들의 생명을 보상하라!
2. 행방을 모르는 40여명의 우리 아들 딸들을 내놓아라!
3. 고문당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내놓아라!
4. 불법, 강제연행과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
5. 인간도살장 대공수사본부는 자폭하라!
6. 고문, 강간정권은 물러가라!
7. 살인정권 물러가라!

여성단체연합생존권대책위원회

가톨릭여성농민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여민회

또 하나의 문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서울노동운동연합 여성부

여성사회연구회

여성의 전화

여성평우회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여성분과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여성부

한국기독교농민회연합회 여성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성화자협의회 사회위원회

목도

찬송 (521장)

성경말씀 (예레미야 51:49-50, 52-53)

은세상에서 술한 사람을 죽인 바빌론,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구 죽인 죄별로 망할 때가 되었다. 그런즉, 칼을 피한자들이 빠져 나오니라.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멀리서라도 이 야웨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너희가 그토록 울부짖더니,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오고 말았다. 내가 말한다. 바빌론 신상들을 벌하는 날,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가 온 세상에 사무치리라. 요새를 하늘에 닿게 쌓아도 내가 침략자를 보내어 바빌론을 헐어 버리리라. 이는 내말이다. 어김이 없다.

찬송가 (515장)

주기도문

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와 모심자를 모함한 백회지.
주 24 15

EBENEZER: 8.7.8.7
T. J. Williams. 1890

I. R. L. Williams (1819-1891)
모음으로 4-9-9-3-1

1. 어느 민족 누구게나
2. 고승의 자비
3. 슬픈 자의 비탄
4. 악한 자의 죄악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나를 구하여 주시라

제자의 길

515

뜻없이 무릎 꿇는

민중이 영혼과 몸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악 2-14]

LLANGLOFFAN: 13.14.14
Welsh Hymn Melody
from D. Evans' Hymnau A Thonau. 1965

I. HAY (1830-1905)

조금 빠르게 ♩ = 100

1.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2.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로 세

우리의 믿음을 치솟아 돌 수 거기 계시서
해 아래 암막 있는 곳 주 거기 계시서

주 뜻이 이 때까지 이다의 치며 사나니
그 관로 막아 주 시어 정 의 가 사나니

Not in dumb resignation

제자의 길

누가 이 젊은이를 살해했는가?

- 살인고문 일삼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



- *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
- * 이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민중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
- * 민주화투쟁대열의 선봉에 서다가 군사독재의 악랄한 살인고문으로 1987. 1. 14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숨을 거두다.
- * 박종철군은 죽음으로 말한다. 이 땅에 더 이상 나같은 죽음은 없어야 한다고.

민주 · 통일민중운동연합

서울민주 · 통일민중운동연합
 강원민주 · 통일민중운동연합
 경북민주 · 통일민중운동연합
 경남민주 · 통일민중운동연합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충남민주운동협의회
 전북민주운동협의회
 전남민주운동협의회
 부산민주운동협의회
 제주민주운동협의회

한 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노동선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서울노동동맹연의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한가톨릭학생총연맹
 민주불교운동연합회
 민주연륜운동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여학생평우회

군사독재는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있다.

소위 치안본부장이란 자가 “고문은 절대로 없었다.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 쓰러졌다”며 국민 모두를 우롱했다. 그러나 민중의 분노가 치솟아오르자 부랴부랴 살인민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눈가리고 아웅식의 거짓수를 벌이고 있다.

첫째, 경찰은 연행시간·고문방법·사망경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박종철군이 더 일찍 강제연행되어 보다 잔인한 고문에 시달리다 더욱 참혹하게 죽음에 이르렀으리라 단정한다. 남영동 분실의 전기고문은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부랴부랴 가족들을 협박하여 시체를 화장했겠는가?

둘째, 치안본부장은 살인고문을 직무에 충실하다가 생긴 실수라고 변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좌경·용공은 계속 뿌리뽑는다고 하면서 고문수사, 용공 조작을 계속한다고 협박하였다. 김종호 내무부장관이 남영동을 방문하여 수배자를 잡아들이라고 독촉한 지 이틀 만에 박군이 고문으로 살해되었다. 수사관들이 특진과 상급에 눈이 뒤집히게 만든 것은 누구이며 상부의 지시와 독촉으로 빚어진 이 사건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셋째, 군사독재정권은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내무장관과 치안본부장을 경질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안다. 정호용은 광주에서 2천여 시민을 학살한 원흉 가운데 하나이며 이영장은 치안본부 못지않은 고문의 본산 서울시경의 수괴였다는 사실을!

저들은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 살인고문의 최고 우두머리들은 아직도 조급의 뉘우침도 없이 거들먹거리지 않는가?

인간백정 전두환 군사독재의 고문실태

고문은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이승만시대의 방첩대·헌병대, 아직도 몸서리쳐지는 박정희시대의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의 살인고문에 비하면 이는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첫째, 더욱 많은 인간 도살장이 생겨났다. 민화련·민노련 사건, 민청련 사건, 최근의 안산노동자 탄압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한 여러 수사기관, 이번의 만행을 저지른 남영동 대공분실 외에도 신길동의 특수수사대(김근조씨 사건), 옥인동의 시경 대공분실, 남산의 시경 5계, 시경 장안동 분실, 보안사 동빙고동 분실(YWAC사건), 보안사 송파 분실(5·3인천투쟁 및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등이 있다. 지방 대도시에도 버젓이 회사간판을 단 이같은 인간도살장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둘째, 고문의 방법이 보다 잔인해졌다. 구타·잠안재우기·굶기기·물고문·

진짜 살인마는 누구인가?

박종철군 살인명령을 내린 진짜 살인마들은 다름아닌 전두환 군사독재 일파이다. 그들은 민중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열기를 짓밟고, 노동·농민·청년·학생들의 반독재·반외세 민족민주운동을 깨부숴야만 자신들의 장기집권 음모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을 구속하고 수배자들을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전두환의 고문실력은 이미 1979년 'YWCA' 사건에서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은'YWCA'사건 관련자들을 보안사 동빙고동 분실에 잡아 가두어 함석헌옹의 수염을 잡아뜯고 당시 병중이던 백기완씨를 무차별 구타하여 허리를 못쓰게 하는 등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

어디 그 뿐인가? 노태우·박준병·정호용 등과 함께 광주 2천여 시민들에게 살인명령을 내린 것은 또 누구인가? 또한 무수한 시민들을 생포하여 죽음보다 더한 고문을 가한 것은 또 누구란 말인가?

광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 하의 무수한 구속자들, 터무니 없이 조작된 용공좌경 사건의 관련자들 모두가 치안본부·시경·보안사 혹은 경찰서 지하실에서 죽음같은 고문에 시달려 왔다.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어린 처녀에 대한 강간 성고문까지 자행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이 바로 2천여 광주시민의 피를 뒤집어쓰고 등장한 전두환 군사독재의 폭력적 본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탄과 두려움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전두환 군사독재가 존속하는 한, 장기집권음모를 획책하는 한 이러한 비극은 처참하게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 큰 분노의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살인고문 우두머리 전두환을 처단하자!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전기고문 등 육체적 고문에서 더 나아가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파멸시키고 있다. 민청련의 이을호씨는 정신이상이가 되어 최근 다시 병원에 입원했으며, 기타 많은 사람들이 몇년이 지나도록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세째, 고문 도중 죽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김근조씨, 박종철군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발표했지만 그 외에 강원도 황간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서울대 수배자 우종원군, 여천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5·3인천투쟁 관련 신호수씨, 부산 앞바다에서 둘에 매달린 채 발견된 서울대 김성수군의 경우 고문 도중에 사망한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가 짙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살인적 고문은 끊임없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지금도 작년 11월 이후 강제납치되어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수십명의 학생·청년들이 안기부에서 살인적 고문에 시달리며 '민민투 사건'으로 조작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군사독재의 타도없이 고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명심하자!

살인·고문정권을 이대로 둘 것인가?

박종철군의 아버지는 어린 자식의 뺨가루를 강물에 흠뿌리며 소리없는 통곡을 되씹었다. 몇번씩이나 줄도를 한 끝에 넋이 나가버린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을 새겨 놓았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어린 자식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빈 주주의를 갈망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눈을 가리운 채 죽음의 밀실에 끌려가 없는 잘못을 자백하도록, 친구를 배신하도록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

자신들의 장기집권음모에 반대하는 진보적·양심적인 사람들을 모조리 좌경·용공분자로 조작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이제 전 민중의 분노의 파도를 휘몰아 남김없이 타도하자! “한국의 인권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헛소리 해대며 전두환 일파를 옹호하는 미국보수정권의 앞잡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다 함께 외칩시다

1. 학살·강간·살인고문정권 타도하자!
1. 살인고문 우두머리 전두환을 처단하자!
1. 인간도살장 치안본부 대공본실·안기부·보안사를 깨부수자!
1. 살인고문 조작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1.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사독재 타도하자!
1.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중의 손으로 민주헌법 제정하자!

다같이 행동합시다.

1. 임의연행, 불법구금, 고문수사 등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민주화운동단체나 인권단체, 종교단체에 고발합시다.
1. 일체의 가두검문, 검색과 불법연행에 응하지 말고 항의합시다.
1. 민주화운동단체에 설치된 박종철군 분향소에 방문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합시다.
1. 고 박종철군 추모기간(1. 20 - 1. 26) 중에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답시다.
1. 고문살인의 진원지인 치안본부, 내무부에 항의전화 합시다.

보 관 용 28

네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갔구나!

.....종철아 네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갔구나.

우리 아들들이 폭력 정권에 의해 당했던 아픔과 고통, 잔악한 물고문, 전기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갔구나.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정신이 들지 말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우리 태복이의 눈물이 그렇그렇하며 이 에미에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해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때의 고통을 또다시 느꼈다.

그때 이 에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태복이를 위해 에미로서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때 이 에미가 겪었던 심정을 종철군의 아버지의 “종철아.....이 아버지는 할말이 없데이.....” 이 한마디로 다 표현될 수 있을 것이리라.

너희들이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잘못을 했던 말이나. 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잔인한 고문을 받아야 마땅하단 말이나. 태복아,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중들이 주인이 되어 모두가 잘살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리도 잘못 된 말이라는 것이냐.

또, 한줌의 재가 되어버린 21살의 꽃다운 청년의 유해를 안고 오염하는 부모의 심정, 잔악한 고문으로 인해 갈갈이 찢겨진 자식의 몸뚱아리를 안고 오염하던 부모의 애끓는 아픔의 대가가 꼭 치러져야 하는 것이었더냐.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미는 알았다. 너희들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옳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요구는 관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정권의 포악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고문 정권에 의해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이 에미도 싸우면서 저들 폭력적 정권의 본질을 폭로 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을 이어 광주의 수천 민중의 피를 뿌리며 등장한 살인마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이 이 땅에 들어선 이래 폭력과 고문, 드디어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성은 극에 달해 정권의 말기적 작태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태복이 너를 통해 깨달았고, 이런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실현에 온 몸을 불사르는 정의로운 많은 아들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철이의 죽음을 통해 나도 우리 태복이와 함께, 이 땅의 아픔을 나누는 자식들을 둔 모든 부모들과 함께, 함께 어깨걸고 싸우리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다.

이 에미는 우리 태복이가 옳았고, 태복이가 걸친 푸른 수의가 결코 죄수복이 아닌 정의를 상징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외치리라.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혀 내리라.

또 차가운 감방에 더이상 가두어 둘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차가운 감방 아닌 불타는 감방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폭력으로 맞서는 현 정권의 심장에 불화살이 되어 쫓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양심수 가족들과 싸워 나갈 것이다.

남영동 치안본부 밀실에 갇혀 피를 토하며, 죽음의 공포로 치떨고, 절규하고, 쓰러져
갔던 태복이와 결국은 목숨을 살인마의 손에 의해 빼앗긴 종철이, 그리고 모든 양심수
들이 똑같이 당한 고통, 이것을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라면 결코 외면해 버릴 수
없을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외면하고 방관한다면 당신도 살인마 전정권의 공모자
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동참해 주십시오.

자식을 둔 부모라면, 형, 동생, 누이가 있는 분이라면, 화목한 한 가정을 짓밟고 한
나라를 폭력으로 짓밟는 현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양심수 석방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진실을 폭력으로 은폐하려는 전정권 퇴진과 싸늘한 감방에 푸른 수의를 입
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자유를 잃은 이 땅의 우리 아들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의 대열
에 어머니들이여!

동참합시다.

.....태복이는 정당했습니다.

모든 양심수들은 정당했습니다.

민노련, 민학련 사건으로 7년째

차가운 감방에 버려진 이 태복의 母